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 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11)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3월 15일 (토) 제 147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아픈 역사의 산증인 크림반도 “신 러시아정교회” 세력 확산

### CT, 필립 젠킨스 교수의 “우크라이나 전쟁” 의 종교적 배경과 전망 소개

흑해를 끼고 있는 크림반도는 북쪽 대륙 세력이 지중해를 통해 바다로 진출하는 요지다. 흑해에서 이스탄불이 접한 보스포루스 해협을 빠져나 가면 마르마라해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서쪽으로 에게해, 지중해로 이어진다. 크림반도는 대륙에서 유럽 문명이 태어난 곳이자 유럽 각국의 해양 교류의 중심인 이 바다로 가는 출발점 같은 곳이다.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충돌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 지역이 가진 이런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다. 근현대사 속에서 크림반도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냈던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다.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하려던 러시아로서는 유럽 진출의 발판이라는 크림반도의 전략적 이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게다가 크림반도를 안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근원인 슬라브 국가가 태어난 곳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호기로 삼아 크림반도를 장악한 데에는 이런 정치, 군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 전 세계에 러시아정교회 사상을 확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크림반도의 수호자로서 재등장하려고 있다.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 교수를 비롯한 역사학자들은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크림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며, 미국이나 유럽이 반드시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he 160-Year Christian History Behind What's Happening in Ukraine: How we have misunderstood Russia, the Crimean Peninsula, and supposedly secular Europe).

현재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을 러시아 군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러시아 의회가 이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승인한 가운데 과거 '크림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림 전쟁은 1853년 10월부터 1856년 2월까지 계속된 러시아 제국과 연합국과의 전쟁이다. 당시 이 전쟁의 발단은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제국 내 그리스정교회 교도들에 대한 보호권을 주장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둘러싼 러시아정교회와 로마가톨릭 사이의 권한 다툼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십자군 전쟁”으로도 역사학자들은 정의한다.

따라서 연합군으로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동맹전 사르데냐 왕국, 오스만투르크가 참전했다. 사실

사르데냐 왕국은 크림 반도에 이권이나 러시아 제국과 특별히 대립관계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계산으로 참전했다.

이 덕에 오스만투르크는 앞서 18세기에 벌어진 제 1, 2차 러시아-투르크 전쟁에서 모두 패배했다가 크림 전쟁에서는 연합국의 지원으로 유일하게 러시아 제국에게 이겼다.

사실 이 전쟁이 '크림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전투가 대부분 크림 반도에서 일어나서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알마강 전투, 발라클라바 전투, 인케르만 전투, 세바스토폴 포위전 등 크림 전쟁에서 벌어진 4번의 전투에서 완패했다.

이 전쟁으로 러시아는 50만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오스만이 40만, 프랑스가 10만, 영국이 2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이 수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는 크림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결국 이 전쟁은 1856년의 파리 조약으로 종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조약의 결과로 러시아제국은 다뉴브 하구와 흑해 인근에서 영향력을 잃게 됐고, 이후 흑해는 모든 국가에 대해 군함 통과와 무장이 제한돼 중립이 선언됐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근대 전투 의료체계가 확립되는데, 당시 영국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38명의 영국성공회 수녀 출신 간호사

들이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나일링게일의 선서'를 하게 됐으며, 군인들이 이전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로 군인들이 병이나 부상으로 죽는 비율이 낮아지게 됐다.

현재 러시아는 다시 한번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러시아와 미국과 EU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익 계산에 따라 “제 2의 크림전쟁”이나 “협정”으로 크림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거나 종결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chocolate**  
fast food  
vitter swearing  
cial networking  
alcohol  
2면  
초콜릿과 인터넷을 멀리한다!

적절한 질문, 잠긴 문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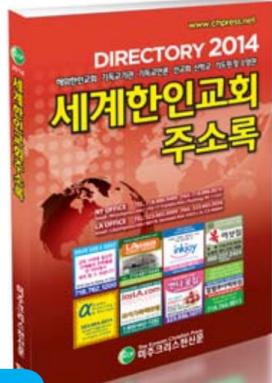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연합선교로 하나님나라 확장”  
북미원주민선교회 회장 김수태 목사

### 사 고

##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 지역별 배부장소

#####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 762-1200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 762-0011  
할렐루야 기독백화점(NJ) (201) 373-0029

#####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 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 636-7430  
복음사 (562) 865-4949  
생명의말씀사(LA) (213) 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 530-2211  
두란노서적 (213) 382-5400  
조이기독백화점 (323) 766-8793

##### ▶ 기타지역

케네딕트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 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 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 460-1656  
볼티모어교회 (410) 337-9448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 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 542-0288  
노스캐롤라이나 벅스카운티장로교회 (215) 945-1512  
전기협회계사 (704) 332-5656

#####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 886-4400  
LA사무실 (323) 665-0009

#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2회 총회소집 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단 및 기관과 회원 제위께 함께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회의 창립총회는 작년 3월 서울에서 한국 교회연합과 공동으로 일본등 기타국들의 지도자들과 가진바 있고 금년에는 북 미주에서 제2회 총회를 회집 하게 되어 알려 드리오니 꼭 참석 하여주시고 열방에 산재한 한인 크리스찬의 미래와 현안에 대한 기도와 심도있는 토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여러분을 초청 합니다

- 일 시 : 2014년 3월 25일 (화) 9:00AM -9:00pm (2박3일)
- 장 소 : 뉴욕성결교회(장석진 목사 시무)  
333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 공항이용: 뉴저지 Newark (EWR)- (국내선 이용시) (24일 도착)
- 연 락 처: 718newhope@gmail.com 718-948-0339 (0292)  
718-948-2039 718-New-Hope fax- 718-948-0345
- 주의사항: 공항 Pickup은 연락 확인후 가능

##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 위근 목사    미주상임회장 황 의춘 목사    한국상임회장 장 종현 박사    제2회 총회 준비위원장 장 석진 박사



시론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지난 2월 26일 이후 11일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 일간지에 나오는 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층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만 자살한 사건으로, 그들은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납기면서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란 메모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여러 단계에서 시위를 하며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현실화, 중증환자 의료보험, 노동력 상실자의 복지에 대한 입법제도를 서두르라. 정부의 빈약한 복지제도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다.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400만명이 넘어가는데, 정부는 오직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비판해 아파트 15층에서 네 살배기 아들과 함께 투신했고, 40대 가정이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었으며, 50대 부부가 투병으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의 자살숫자는 1만4,160명이었고, 자살시도자는 약 35만 명이나 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80.3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수급자발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중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2013년에 8.9%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복지선진국처럼 23% 이상의 재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 또한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살은 가난한 이들만이 아닌 물질의 풍부함,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다. 세계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잘되었다는 스웨덴의 경우는 국가 재정의 23% 이상을 복지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영적으로 공허하기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져 자살이란 수단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수도 갈수록 늘어난다. 영국에서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조사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뽑혔다. 행복지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높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그에 따른 자살문제도 완전한 해법은 없다. 다만, 최소화시킬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1) 시위를 주도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먼저 자신들의 것을 조금씩이라도 내놓고 시작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다. 시위보다는 행합, 본보기가 더 중요하다. 2) 한국에는 55,000교회와 있는데, 1년 헌금예산 약 3조3천억원 중에 구제비는 평균 3-4% 정도 된다고 한다. 구제예산을 조금씩만 더 증액시켜 사용하면 교회와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이라고 굳게 믿는다. 어떤 환경에 처해있던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관, 사생관이 바뀌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족한 중에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 모든 이들의 관심과 도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게 될 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희망적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

# 초콜릿과 인터넷을 멀리한다!

## 바나리서치/CT, '2014년 사순절' 미국인들의 금욕과 절제 경향 설문결과 밝혀

2014년 사순절을 다시 맞으면서 크리스천은 살아 있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예수처럼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삶, 힘든 상황속에서도 결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 우리 각자의 일상가운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다.

이번 사순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버리는

것", "절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기념한다. 초콜릿과 같은 음식이나 금요일 저녁 즉말의 시작을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등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와 금욕이라는 실천을 하게 된다.

바나리서치는 미국인들이 사순절을 맞아 금식이나 절제하는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했다(Celebrating Lent 2014). 그리고 크리스천티투데이는 116,000개의 트윗에 올라온 절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What To Give Up for Lent 2014? Twitter Reveals Top 100 Choices).

사순절 기간에는 금욕이나 절제를 통한 경건 생활의 강화에 힘쓴다는 기독교 전통의 영향은 현재에도 72%의 미국인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이 여전하다. 심지어는 비크리스천일지라도 70% 정도가 절을 알고 있지만, 불과 10%만이 금식을 통한 절제를 경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엘더스 세대는 82%에, 26%가 금식을 계획하고 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의 상징적인 음식들로는 단연코 '썩썩'이

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실제적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SNS(16%), 스마트폰(13%), TV(11%), 비디오 게임(10%), 영화(9%) 그리고 인터넷 사용(9%)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기린다.

밀레니엄세대(37%), 부머스(39%), 남성(43%) 그리고 경건한 크리스천들(48%)이 인터넷이나 여흥을 위한 첨단 기술 장치들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미 평균 성인들 3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들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민감하지 못한 엘더스들은 6%만이 응답했다.

한편 크리스천티투데이는 트윗을 통해 실제로, 미국인들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을 조사했다. 1위에서 10위까지만 소개한다:(표2)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들로는 1위에서 10위까지가 다음과 같다:(표3)

	사순절을 안다	금식 계획	음식 절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절제
모든 성인들	72%	17%	88%	31%
밀레니엄	57	20	82	37
버스터즈	70	16	96	31
부머스	80	10	79	39
엘더스	82	26	86	6
캐톨릭	95	63	89	30
크리스천	70	16	96	48
남성			88	43
여성			87	23

BARNA GROUP | Source: BarnaGroupOmniPollN=1,026 February 25—March 2, 2014 Sampling error +/- 3.1% at the 95% confidence level.

Rank	Category	Number of Tweets
1.	food	30,565
2.	technology	9,764
3.	school/work	6,744
4.	habits	6,689
5.	smoking/drugs/alcohol	5,737
6.	irony	3,176
7.	relationship	2,715
8.	sex	2,152
9.	health/hygiene	1,651
10.	generic	1,208

## 미국인 72%, '사순절-경건생활 강화' 기독교 전통 알아 젊을수록 모르지만 밀레니엄세대 금식은 평균치 잇돌아

사순절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즐겨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위까지 확장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다. 불과 17%의 성인들만이 지난 3년 동안 사순절 기간에 금욕과 절제 생활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의례적 전통이 강한 캐톨릭은 그레도 65% 정도가 금식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에 크리스천은 15%만이 금식을 3년 동안 해왔고, 율레에는 16%가 금식을 계획했다.

나이가 젊을수록 사순절을 알고 있는 비율은 적어진다. 밀레니엄세대는 57%가 사순절을 알고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 미 성인 17%만이 금식을 하고 있지만, 밀레니엄들은 20%가 금식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반면에 부머 세대는 80%가 사순

절을 알고 있지만, 불과 10%만이 금식을 통한 절제를 경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엘더스 세대는 82%에, 26%가 금식을 계획하고 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의 상징적인 음식들로는 단연코 '썩썩'이 3) 결론으로, 사순절에는 절제와 금욕을 통한 경건 훈련에 힘쓴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날 TV, SNS, 비디오 게임들 그리고 다른 현대의 "우상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더욱 더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이러한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 버릴수록 충만해지는 자기 부정의 고백과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해야 한다.

Rank	What	Number of Tweets
1.	chocolate	5,477
2.	twitter	4,999
3.	school	3,754
4.	alcohol	3,116
5.	swearing	2,833
6.	social networking	2,726
7.	soda	2,213
8.	sweets	2,030
9.	fast food	1,782
10.	junk food	1,306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8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적절한 질문, 잠긴 문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

## 스몰그룹닷컴, 앤드루 소벨, 제럴드 파나스의 질문 통한 관계형성원리 소개

프랭클린 루스벨트, 소크라테스, 셰익스피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탁월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소그룹 공동체 형성원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금모금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만큼은 워렌 버핏과 비견되는 인물인 앤드루 소벨과 제럴드 파나스는 질문을 통한 관계형성 노하우를 크리스천 모두에게 전해준다.

2월에 들어서면서 연말연시 동안 씬을 가졌던 성경공부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활기찬 기운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 새로운 사역에 임하는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공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이다. 이때 많은 소그룹들이 겨울 수련회나 MT를 통해 쉬는 동안 받은 은혜나 경험을 나누려고 한다. 그러나 잠시 안 보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가 낯설어 멤버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교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한다. 이런 때는 인도자가 멤버들의 마음을 열어 모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인도자는 어색한 분위기에 처한 멤버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하루에 수십 명과 상담하는 앤드루 소벨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한다. 질문은 마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이자 잠긴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

쇠이며 대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심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의 힘을 잘 활용하면 마음을 열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하는 멤버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질문하는 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고 그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사람의 잠재능력을 일깨워주고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수께서도 질문을 이용해 사람들의 변화를 유발하셨다. 훌륭한 질문은 생각을 자극해 의견을 재고해볼게 만든다. 탁월한 질문은 문제의 틀을 재구성하고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게 한다. 좋은 질문은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상식이나 고정관념에 찬물을 끼얹으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이끈다. 그리고 질문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하도록 흥미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지 멤버들이 피차 이야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앤드루 소벨은 인간관계를 쌓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의 활용을 제안 한다: △사람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일에 공헌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면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낀 일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현재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쁘지 않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준 롤 모델이나 멘토는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그곳에서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당신인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잘 익히고 활용하여 더욱더 풍성한 소그룹 나눔의 시간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교회와 국가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간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을 다짐하는 말이기도 하다. 개인은 국가 형성의 세포가 되고 국가는 그 개인을 지키고 보호한다. 개인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거대한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고 억압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개인의 집합이 낳은 국가 권력은 울타리이기보다는 울무가 되기도 한다.

일찍이 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이원화시켜 나왔다. 이유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지배함으로써 일어나는 온갖 비리와 모순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국가 권력에 예속되거나 시녀화 함에서 오는 부정적 역할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그리고 정신적 등불이 되고 영적 지주가 될 때 역사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며 제 구실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교회 지도자나 구성 요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거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시신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1천만 신도라는 게수상의 겉모양이 사회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나 같갈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다’라고 내세우지 못하는 죄스러움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계절이 오면 사문에 팔촌까지 들먹거리며 저마다 교인임을 자처하고 표를 겨냥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기쁨을 토하는 국회의원 지망생에게 어느 교회 교인이나고 몰았더니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녔다고 대답했다는 해프닝도 있다. 두 세계를 자유자재로 왕래하면서 시의에 맞는 처세를 구사하려는 설익은 크리스천들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은 말이 아니다.

정교분리의 고전적 원리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정치와 종교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구조악을 방지하거나 외면하는 교회의 집단행동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구조악을 방조하고 거드는 것은 더욱 나쁘다.

교회는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바른 정책을 펼쳐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어야 한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국가 위에 존재한다. 국가란 현실 집단이며 세속적 집단이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 집단이며 거룩한 공동체다.

유신 말기에 있었던 일이 생각한다. 어느 날 집권당의 지구당 관계자가 지구당대회 개최지를 물색하다가 총신교회에 적합할 것 같기에 찾아왔노라며 장소로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어렵겠다”고 했더니 그는 약간 고압적인 말투로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라고 다그쳐 물었다. 그때 필자는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 교회를 전당대회 장소로 생각한 그 발상한 뿌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가능성을 누가 제공했는가, 그것은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뒤섞어 놓은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그 국가는 불행한 국가다. 기독교가 권력을 장악하면 교회는 타락한다. 교회는 높은 산성이어야 하며 밤바다의 등대여야 한다. 반국가적 행동이나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가 하면 교회의 정권 시녀화 역시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이야말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 아픈 역사의 산증인 크림반도 “신 러시아정교회” 세력 확산

(1면에서 계속) 첫째는 경제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EU 경제권 편입을 막아야 한다. 푸틴은 관세동맹이라는 대경제권을 만들고 있다. 지금 까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참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EU에도 인구 4500만 명이 가진 우크라이나의 잠재수요는 오늘의 경제침체를 풀어줄 블루오션이다. 둘째는 안보다. 미국과 서유럽은 폴란드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끌어 들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방확대를 통한 러시아 견제망을 완성하려고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나토의 동방확대는 러시아의 앞마당을 차지하겠다는 모욕적인 야망이다. 셋째가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푸틴은 요즘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 전 세계에 러시아정교회 사상을 전파하는 메시아 역할을 강조하는 블라디미르 솔로보프, 미카엘 유리예프,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같은

민족주의적 정치사상가들의 저서에 탐닉하여, 주지사들에게도 올 휴가 때 그들의 책을 읽으라는 숙제를 냈다. 그중에서도 푸틴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책은 유리예프의 “제3제국, 러시아의 길”이다. 2006년에 나온 이 책은 2054년의 가상세계를 묘사한다. 친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오렌지 혁명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키는데 ‘제3제국’의 황제 블라디미르2세가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를 러시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략과 너무 흡사하여 러시아 독자들은 흥분하고 비러시아 독자들은 전율한다. 푸틴이 지난 4월 기자들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행동은 최후 수단이다,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동서분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힘으로 점령한 크림반도를 ‘인질’로 잡아 우크라이나의 서방 편입 차단, 러시아 세력권



잔류를 최후의 양보선으로 삼을 것이다. 물리적 개입을 꺼리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하지만, 경제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과도한 서유럽은 미국이 바라는 경제제재에 냉담하고, 이번 위기로 새로 만들어진 현상(status quo)을 인정하는 것만이 푸틴의 야망을 현재의 선에서 주저앉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크림반도를 미끼로 던져주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편입에 대한 푸틴의 야망을 누르자는 냉엄한 권력정치의 실상이다. 결론으로, 반도는 대륙과 해양에 끼인 존재다. 그래서 늘 할림을 당하

기 쉬운 땅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끼인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러시아정교회 사상의 확산이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그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EU는 러시아의 의도에 대비해야 한다. 결국 크림반도는 누구의 것일까. 영유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것일까, 주민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것일까. 아니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학살과 핍박을 견디며 지금도 인구의 10% 남짓을 차지하는 이슬람계 타타르족의 것일까. 아마도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 모두의 것이 아닐까.

**3월 18일 오후 7시**

너무 쉬운 전도, 재미있는 전도,  
하면 할 수록 열매 맺는 전도

**목회자를 위한  
예심 전도학교 개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

**선착순 모집  
등록비 20불**

대상 : 목사, 사모, 전도사, 선교사.  
교회가 연락합니까? 오세요

강사 :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 교회)  
장소 : 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주최 :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접수처 전화 : (562) 833-5520,, (310) 938-0824  
이메일 : pyckim@gmail.com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당신의 표정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얼굴표정과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얼굴표정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나친 근심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현대병의 주범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이며 30%는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되새겨 걱정하는 것이고, 22%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걱정하는 일이며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걱정의 96%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며 피를 말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근심에 싸인 얼굴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4명 중 한 사람은 암으로, 5명의 한 사람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스트레스가 생기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몸과 정신에 병이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 나쁜 생각이 들

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웃는 순간에 눈을 해하려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웃을 때 만병이 치료되며 근심 사라지며 생활이 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웃음 치료사의 간증을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어느 가정의 장모가 웃음을 잘 못 서서 집은 물론 살림까지 빼앗기고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부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인생은 고달픈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웃음 치료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 힘도 들었지만 일이 끝나면 콘소리로 웃으면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쳐다보게 되었답니다. 작고 초라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

으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여보! 나야!” 세월이 지나 부부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정이 안정되고 작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장만하여 이사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그때 투신자살을 결심했어... 마지막 담배 한대 피우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여보! 나야! 라고 외치는데 정신이 번쩍 나서 마음을 바꿨어 고마워 여보.”

최고의 부자 워렌버핏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할 때 삶의 가치와 의미는 성공을 만들어주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핸드폰에 혼자 사진을 저장하고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속으로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폰수 없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만큼 말입니다. 자청해서 손

자, 손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손주가 없는 분들에게 항의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녀를 보고 나니 그 선배 목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다지 예쁜 얼굴은 아닌지만 후덕한 얼굴이 가슴에 기쁨을 가득 담게 해줍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소 이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각 인종들의 웃음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듯 해 웃는 짐승들 소, 강아지, 고양이 등 짐승의 모습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600번 가량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 웃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보고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 푸 / 른 / 초 / 장

**차근규 목사**

(순복음부천교회 담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즉 죽음이 임박했을 때나 인생에서 큰 절망을 만났을 때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수시로 외롭게 기도하셨으며 이러한 기도의 삶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악한 계교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지

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일이 분주하면 할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1. 기도는 내면의 삶, 즉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기도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매

개체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고 이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강건하게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아집과 자만심을 깨뜨립니다. 원래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품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뿐더러 하나님의 뜻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즉 현재의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돌보

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영이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2. 기도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도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서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동안 기도해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즉 끊임없는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만 기도하고 실패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3. 기도는 성령충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능력있게 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고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

으로 충만할 수 없고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4.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일일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리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거나 정중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꾸준도 기도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분은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영육 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에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9절)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가정과 환경 등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참된 이유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모세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주님의 약속대로 능력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00년이 다 지나기 전 로마제국이 복음으로 점령되었고 그 이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 미주 갈멜산기도원 신년 축복기도성회

기간 : 2014년 4월 24일(목, 저녁)부터 30일(금, 저녁)까지

시간 :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성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한국 CBS, 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b>1 January</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2 February</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b>3 March</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4 April</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5 May</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6 June</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문의

미주 갈멜산기도원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www.galmelsan.or.kr](http://www.galmelsan.or.kr)



■ 다시보기 : [www.cbs.co.kr/tv](http://www.cbs.co.kr/tv)  
■ 트위터 : [www.twitter.com/cbssolomon](http://www.twitter.com/cbssolomon)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http://www.facebook.com/cbssolomon)  
■ 유튜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http://www.youtube.com/cbssolomontv)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하나님 신앙의 증거가 있다면 왜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자일까?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Richard Deem은 "Belief in God"이라는 그의 글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말인가?

20세기 초에 J. Leuba는 그의 저서 The Belief in God and Immortality에서 1916년과 1934년의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다른 그룹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더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69년에 Martin Trow와 연구팀은 과학자들의 35%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미국 일반인의 경우는 90%가 하나님을 믿고, 40%는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

종교와 학문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Elaine Ecklund이나 Christopher Scheitle

을 하고 있다.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들이 많다. 과거에도 현대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중에 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과학자 중에 몇 명을 찾아보자.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1473-1543)는 최초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와 글을 하나님과 연결지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성경과 상충된다고 보지 않았다. 케플러(1571-1630)는 탁월한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였다. 그는 빛에 대하여 연구했고, 태양의 움직임에 대한 법칙을 완성했다. 뉴턴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뉴턴의 우주적 중력에 대하여 이해한 것 같다. 케플러는 진지하고 신앙심이 깊은 루터교도였다.

갈릴레오(1564-1642)는 지동설로 인해

나를 버리지 마소서"였다.

뉴턴(Newton, 1642-1727)은 천재적인 학자였다. 그는 화학을 포함한 그의 과학에 있어서 수학과 숫자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는 성경에서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는 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연과 공간의 필수적인 존재였다. 그는 지적이고 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주의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믿었다.

그 외에도 위대한 과학자 Robert Boyle(1791-1867), 19세기의 과학자 Michael Faraday(1791-1867), 생물학과 유전학의 저장 Gregor Mendel(1822-1884),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운 William Thomson Kelvin(1824-1907), 그의 친구 물리학자 George Gabriel Stokes(1819-1903)나 James Clerk Maxwell(1831-1879) 같은 과학자들도 진실한 성도들이었다.

소위 콰텀 이론의 창시자 Max Planck(1858-1947) 역시 하나님이 편재하심을 믿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고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 아인슈타인 Einstein(1879-1955)은 상대성 원리 등 수많은 이론들로 현대 과학에 공헌했다. 물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개인적인 신앙은 아니었다. 대영백과사전은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의 부인했고, 존재하는 만물과 조화를 이루

##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같은 학자들은 21개의 유명 연구기관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과학 심리학 등에서 연구하는 과학자 2,198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은 어느 특별한 과학의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연과학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의 분야에서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는 40%, 생물학은 41%, 화학자는 26%로 평균 37%였다. 반면에 사회학은 34%, 경제학은 31%, 정치과학은 27%로 평균 31%였다.

과학자들 가운데서 무신론자는 미국에서 자란 과학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출신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더 많았다. 예상되는 결과다. 한 가지 재미있는 발견은 결혼여부와 자녀들의 숫자에 따라서 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그렇게 보면 위기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과학자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과학과 종교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일부 무신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이 언제나 갈등하는 것처럼 보지는 않는다. 라이스대학의 사회학연구팀은 21개 대학들의 과학자들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오직 15%만이 과학과 종교가 항상 갈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과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

케플러와 충돌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태양중심의 지동설에 친구였던 교황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이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선언했다. 또한 자신의 이론이 성경의 또 다른 해석으로 보았다.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는 불란서 수학자이고 과학자이며 철학자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다. 그는 과거의 철학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느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Richard Deem에 의하면 실제로는 데카르트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성을 세우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의 철학의 중심이었다. 데카르트나 베이컨들은 과학적 방법론의 개발자로 여겨지는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시스템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두 사람 다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독실한 성도들이었다.

파스칼(Pascal, 1623-1662)은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저자와 신학자였다. 그는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한다. 기계 계산기를 발명하고, 공기의 압력과 진공의 원리 등 수많은 원리를 발견했다. 그는 165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그의 연구를 과학에서 신학으로 바꾼다. 광세를 비롯한 그의 글들은 변증학적인 의도가 많이 담겨있음을 본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결코

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의 생각을 알기를 원한다.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다"라고 했다. 그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이라고 했다.

최근의 세계적인 유전학자이고 National Human Gene Research Institute의 Dr. Francis Collins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학적인 성취와 신앙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았다.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간증했다. 지금도 미국과 세계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한 과학의 영역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길이다. 성경과 과학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잘못된 과학이론과의 충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과학계와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뛰어난 한인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설교 사역을 하기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은지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버에서 정신구 목사

**A:**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재합니다. 첫째, 책을 읽는 방법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한편의 책을 여러 번 읽어 저자의 사상에 흠뻑 젖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신학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한 사람을 발견하면 위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책을 전부 읽는 것입니다. 물론 한사람의 탁월한 저자라 할지라도 그가 쓴 모든 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의 저자는 그가 다루는 주제마다 그리고 그가 쓴 책마다 그 분야의 가장 뛰어난 내용일 때가

### (2)경건독서와 신학독서의 균형 맞추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은 그 곡이 어떤 곡이든지 아주 탁월한 연주가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런 저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저자가 쓴 모든 책을 빠짐없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저자의 사상을 통째로 이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는 스승과의 사상적인 교류를 통해 사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스승의 사상을 전수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나다면 스승의 사상을 넘어서 더 깊은 사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토록 체험하고 생각한 경험과 사고의 진수를 엿기스처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읽고 있는 저자의 수준에 가까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술을 전수하는 스승과 제자사이의 관계처럼 독서를 통한 신앙의 선배와 우리와의 관계는 밀접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는 각기 최고의 달인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가장 밑에서 시사를 받는 것은 그 분야의 거장이 되는 유일한 지름길이자 바른 길입니다. 음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악성이라고 하고 무술에서는 고수라고 합니다. 바둑은 임신의 경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분야는 역사상 이런 거장들에 의해 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생스승으로 삼을 만한 영적 거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더 핑크는 후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 오웬, 토마스 쿤원, 토마스 멘톤이 루터나 칼빈보다 2배나 더 유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을 읽는데 거의 2년이나 걸립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독서의 3번째 중요한 방법은 독서시간 배분에 있어 책의 종류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읽는 책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독서에 있어서 균형도 아주 중요하합니다.

경건독서와 신학독서의 균형입니다. 먼저 신학서적을 읽는 것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학서적만 읽는 사람은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가슴은 자꾸만 식게 됩니다. 반대로 신학서적을 읽지 않고 경건서적만 읽는 사람은 가슴은 쉽게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 열정은 곧 식어버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학 서적 읽기와 경건서적 읽기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나 혹은 반나절을 신학공부를 하면 그다음 하루나 반나절은 다른 공부를 하는 독서원칙을 세웠고 이런 방식을 통해 지식을 추구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공부할 때 하루의 절반 정도도 하루는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그다음의 하루 혹은 반나절은 신학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돌아가면서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균형있는 독서를 하십시오. 균형이 깨진 독서처럼 거저된 지식을 낳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균형있는 식사를 하듯이 독서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고전과 신간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 제출처

The Revived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수신 : 청빙위원장

###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2.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 담임목사청빙

San Francisco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을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1.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분(M.Div)
2.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
3.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신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합니다.
4. 목회경력10년 이상이신분 (담임목사경력 3년 이상 포함)
5.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6.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제출서류

1.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2.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험, 목회비전)
4. 추천서 2부(동봉)
5. 최근 6개월 내 설교 DVD 2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웹사이트 www.kbch.org 에서 다운받으세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Att. HONG KI HAK  
문의 : 청빙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kbch.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다크파(DAKPA)



북쪽으로는 중국과 남쪽으로는 인도와 접하고 있는 부탄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다. 이 나라의 풍경은 매우 다양하여 평평한 고원에서부터 모래 평원이 있는 가하면 험준하고 습기 많은

그랭과 또는 브로코파로도 알려져 있다)는 많은 소수 부족들 중 하나다. 이 종족은 네팔의 림부족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주로 동쪽 사르텔 계곡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미라 사르텔(또는 브로크파)로 불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대부분 다크파인들은 농사를 짓는다. 주요 작물은 옥수수, 보리, 사탕무 등이다. 다른 주요 활동은 티벳 물소인 야크와 양을 기르거나 방적업을 하고 울을 짜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몇 마리의 돼지나 닭을 기른다. 야크는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사용되며 고기나 우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탄 땅의 약 3%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다.

다크파 여성은 긴 머리를 하고 전통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그들

은 대체로 붉고 하얀 실크 폰초 외투와 동물 모양으로 장식된 붉은 실크 자켓, 붉은 울 망토를 입는다. 또한 꼬아 만든 검은 울 자켓을 입기도 한다. 남자는 가죽 또는 천으로 된 하얗고 큰 울 바지와 붉은 울 자켓을 입거나 때때로 가죽과 벨트로 된 소매없는 긴 외투를 입는다. 남성과 여성 둘 다 티벳 귀걸이를 하며 무엇보다도 다크파의 가장 큰 구별은 독특한 느낌의 모자로 평평한 원반 모양의 야크 털로 만들어져 있으며 각각 분수같은 다섯 꼬리가 있다.

다크파 사이의 사회적 신분은 가족의 경제적 위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부 힌두 네팔인들을 제외하고 카스트 제도는 없다. 황실과 소수의 귀족 계층은 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다. 보통 개인들은 두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아내들은 처녀 때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신앙

다크파는 거의 100% 불교다. 그들은 티벳 불교의 "붉은 모자" 종파를 따른다. 또한 전통 티벳 사머니즘도 일부가 믿고 있다. 그 사머니즘들은 불 수 없는 하느님, 악마, 조상신들을 믿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은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사만(사제, 여사제)을 의지한다.

대부분의 불교가족들은 집안에 사당을 둔다. 가난한 가정은 사당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은 사랑과 같이 정교한 제단과 램프, 향료 등 기타 종교적

인 기구들을 빼지없이 갖춘 방을 갖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주위 국가들과의 고립된 역사로 인해 부탄의 사람들은 이방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히 보수적 성향을 띠며 조상의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한다. 그러나 한편 현대 의학과 문명의 편리함에 대한 필요 때문에 더욱 변화하기 쉽게 됐다.

다크파는 복음에 고립돼왔고 저항적이었다. 이 땅의 고립과 전통의 벽이 깨어지고 복음의 힘에 의해 해방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자와 선교 헌신자들이 요청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독교인 보호해줄 테니 돈내라"

이슬람 과격 세력이 시리아 북부지역 라카의 기독교인에 대해 '보호세'를 내도록 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온라인매체 하레츠(Haaretz)가 최근 보도했다.



이슬람 과격 테러리스트 집단인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는 지난달 말 라카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기독교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ISIL에 세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호협정 '딤마(dhimma)'에 합의했다. 하레츠는 "라카 기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슬람 세력인 ISIL이 내민 담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담마는 이슬람법에 명시된 용어로 비(非)이슬람교인을 뜻한다.

보호협정에 따르면 라카의 기독교인은 ISIL에 1년에 두 차례 금화 4개를 내야한다.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는 금화 4개의 가치가 대략 미화 500달러(약 53만원)에 해당한다며 중·하층민의 경우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전했다.

보호협정에는 봉교된 교회 건물을 재건할 수 없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등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ISIL의 점자제에 협조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슬람 세력에 대한 모략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ISIL에 보고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라카의 기독교인이 담마를 어기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담마는 사실상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이슬람국가에서 비이슬람교인에게 매겼던 인두세 '지즈야(Jizyah)'의 부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10% 미만이다. 지난해 5월 ISIL에 의해 절멸당한 라카에는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영국의회서 상영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 상영된다. 제작사 태풍코리아는 4일 "영국 의회 상영은 영국 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와 한국의 북한정의연대의 추진으로 성사됐으며 영국의 '영국-북한 의회 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엘튼 경의 요청으로 18-20일 사이 상영된다"고 말했다.



신이 보낸 사람은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상영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유엔에 등록된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가 추진했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작사 관계자는 "유럽 각국 관련 단체와 유엔 산하 관련 기구 등에서 상영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3일 기준 신이 보낸 사람의 누적 관객 수는 36만1300여명이다. 개봉 3주 만이다. 신이 보낸 사람의 '조용한 흥행'에 대해 국내 영화계는 '신이 보낸 사람은 신이 보냈나'라는 감탄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영관 수는 초기 220여 곳에서 160여 곳으로 급감하고 있다. 정유동 태풍코리아 본부장은 "외국에 비해 국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며 "국내 관객들이 북한 현실을 다룬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평화적 해결을"

세계 교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등 미국 기독교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제프 터니클리프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대표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지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조속히 찾을 것을 촉구했다. 유럽복음주의연맹(EFE)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폭력 사태가 멈추는 기적을 바란다"며 세계 기독교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미국 선교단체 빌리그레이엄복음협회(BGEA)는 3일 구소련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사정에 밝은 빅터 햄 부대표를 현지로 급파했다. BGEA는 햄 부대표가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침례교 목사 출신인 투르치노프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햄 부대표는 "투르치노프는 하나님의 형제이자 위대한 정치가"라며 "그가 현재 상황에서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례교세계연맹 부회장을 지낸 러시아 부흥전도사 유리 시프코 목사는 러시아선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교회가 정부의 군사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철야기도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축출, 러시아 군사 개입으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수도 키예프에서 수개월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로 현재까지 100명이 넘게 사망했고 크림반도에서는 무력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알사바브, 에티오피아에 대한 '성전' 촉구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조직 알사바브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하드'(성전)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9일 발표된 음성 메시지에서 무크타르 아부 알 주베이르로 알려진 알사바브 지도자 아흐메드 압디 고다네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에티오피아는 미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왔으나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다네는 '아프리카의 빨' (에티오피아·지부티·소말리아 3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속칭)로 소말리아의 이웃나라면서 무장단체에 적대적인 아프리카 연합(AU)을 주도하려는 에티오피아와 거룩한 전쟁을 수행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소말리아, 너의 신앙은 공격당하고 너의 땅은 나눠지고 너의 자원은 괴뢰정부에 의해 약탈당했다. 우리의 승리는 지하드(성전)에 있다"며 선동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의 공개성명은 지난해 9월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아브디라쉬드 하쉬 전 소말리아 장관은 "알사바브의 폭력과 민간인 살해가 많은 소말리아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말리아 국민은 그와 그의 정책에 대해 더 걱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 1월 4천395명의 군병력을 소말리아 주재 '아프리카연합(AU) 평화유지군'(AMISOM)에 파견한 바 있다.

영화 '노아', 이슬람 국가들에서 '상영금지'

테러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노아'가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상영금지 조치됐다고 허핑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이슬람 전통은 선지자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주인공 노아를 맡은 러셀 크로우의 극중 역할이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검찰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에 상영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라마운트사 관계자는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주요 이슬람단체 중 하나인 알-아즈하르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영화는 성경적인 인물을 묘사했으나, 궁극적으로 신앙과 반대되고 이슬람 사리아의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한 종교단체 역시 이 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감독이 성경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사는 최근 '노아'의 홍보 마케팅 행사에서 "성경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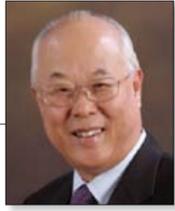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3)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카이퍼의 기독교 정치의 모델

1920년 카이퍼 연구원에서 발행한 화란 칼빈주의 운동의 계보를 설명하는 엘빙과 카이퍼의 스탠다드(Stanadaard)의 편집주간으로 40주년 기념 포스터에 보면 카이퍼는 두 명의 멘토(Mento)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16세기의 요한 칼빈(John Calvin)이고 다른 한 명은 카이퍼의 정치적 스승인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이다. 카이퍼는 칼빈으로부터 개혁신학의 원리를 배웠고 특히 일반은총의 원리를 터득해서 발전시켰다. 따지고 보면 그의 기독교 정치이론도 결국 칼빈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특히 흐룬 반 프린스터는 카이퍼에게 '반혁명'의 영감을 주었고 칼빈주의적 정치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했다고 할 수 있었다.

(Anti-Revolutionare Partij)을 만들었다. 그 후 그는 당수로 있었고 후일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당권을 물려주었다. 즉 우리가 카이퍼의 기독교 정치 모델을 말할 때 칼빈과 흐룬 반 프린스터를 안다면 카이퍼의 정치사상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독교 정치의 모델이 될 만한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의 기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들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이 그의 기독교 정치의 기초이다. 그런데 이미 16세기 요한 칼빈은

적인 구원자이실 뿐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주권자이심을 말했다. 결국 카이퍼의 일반은총 사상 또는 그리스도의 왕권 사상이 되고, 그것이 카이퍼의 기독교 정치철학의 기초라고 본다. 그리고 칼빈의 국가에 대한 이해도 카이퍼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칼빈은 국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입을 여실 때는 무엇보다 다른 것에 우선하여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우리는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주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 "율법은 국가의 강한 조직이다"라고 했다. 칼빈이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므로 결국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카이퍼는 칼빈이 어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은 삶의 전부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카이퍼의 칼빈주의를 칼빈과 구별해서 신칼빈주의(Neo-Calvinism)이라고 하지만 그 사상의 뿌리와 맥은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카이퍼는 칼빈의 일반은총론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다 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랑그레이(M. R. Langley)의 설명대로 카이퍼는 16세기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심지어 5세기의 어거스틴(St. Augustine)의 "하나님의 도성"(Civitate Dei)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적 기반 위에서 있다고 본다.

2) 카이퍼는 흐룬 반 프린스터가 모델이었다. 흐룬 반 프린스터는 19세기 칼빈

는 전 화란 수상이며, 위대한 정치지도자, 언론인, 반혁명당 당수이며 협회의 명예 회장인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가 있었다. 그는 카이퍼의 연설에 점차 빨려 들고 화란 국가의 미래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날 카이퍼의 연설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깨끗한 이슬처럼 나이든 흐룬에게 내렸다. 그날 카이퍼의 연설은 도전이었고 개혁이었고 희망이었고 감동이였다. 집회를 마친 후 우트레흐트교회의 교제실에서 67세의 흐룬과 31세의 카이퍼 목사가 감격적으로 만났다. 그 만남이 카이퍼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또한 화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칼빈주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날개를 달아 온누리에 비상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9월1일에 흐룬은 공문서로 카이퍼를 반혁명당의 장래 지도자로 공식 지명하였다.

흐룬과 카이퍼의 만남, 흐룬의 입장에서든 든든한 후계자를 만난 셈이고, 카이퍼의 입장에서든 위대한 사상적 정치적 스승을 만난 셈이 된다. 카이퍼의 대 선배이자 정치적 원리를 제공한 흐룬 반 프린스터는 화란의 귀족출신의 정치가였다. 그는 본래 역사학자였다. 역사학자의 예민한 감각으로 화란을 비롯한 당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볼 때 그가 막힐 노릇이었다. 곳곳에서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이 창궐하고 교회들은 이런 세속주의적 사상을 가감 없이 받아들였다.

(9면으로 계속)

## 카이퍼 신칼빈주의는 칼빈의 "하나님 주권" 사상이든 정치철학 흐룬이 조직한 반혁명당 이어받아 칼빈주의 사상 발전 개혁시켜

1)카이퍼는 칼빈을 모델로 했다. 카이퍼는 그 당시 최고의 칼빈 학자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도 "칼빈과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 연구"이었다. 거기다 그는 베이스트 교회의 목사로 있을 때 철저한 개혁주의 성도들로부터 16세기 요한 칼빈의 사상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았다. 카이퍼는 어학의 천재인데다 옛날 칼빈처럼 라틴어에 탁월해서 모국어인 화란어보다 더 잘했을 정도이다. 그러면 칼빈이 카이퍼에게

말하기를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과 뜻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의 주권적 기쁨에 따라서 그것들을 강압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신자들을 위한 구원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했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

령뜻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보다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칼빈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카이퍼와 일맥상통한 말을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아 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의 교훈이 순전하게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어서 모든 것이

주요 운동의 선각자였다. 그는 또한 기독교 정치, 기독교 정당,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놓았다. 카이퍼가 우트레흐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흐룬 반 프린스터와 만남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 1860년 5월 18일 기독교국가교육 협회 전국대회가 카이퍼가 시무하는 우트레흐트중앙교회에서 모였고, 그날 카이퍼가 대회 전야 연설을 말했다. "국민의 양심에 고향"이란 불같은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

어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CCM도 세속문화의 장르를 모방하여 교화문화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테크니거나 그에 수반하는 장비 등 여러 면에서 세속음악의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흉내 내는 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음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몇몇 교회가 시도하는 뮤지컬도 그렇습니다. 뮤지컬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온 브로드웨이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새만 복사해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뮤지컬 또한 학회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모만 크게 하고 돈만 많이 들어 세팅과 조명 소도구 동물까지 동원하면 대단한 작품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문화를 저급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현금을 끌어들이고 교회당만 크게 지

으면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세속 뮤지컬의 발전은 아주 대단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들이 규모나 장비 면에서 옛날처럼 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 놀라운 작품성을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화도 비록 출연자의 수가 적고 제작비용이 적어도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성이 있어야 하고 연출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기독교문화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학예회 밖에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인을 찾아 그들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연락처: (714)699-0210

### 칼럼 음악목회 (24)

## 기독교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구약시대의 기독교문화는 형식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의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음악이 종교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12절-14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

하여 이르되 찬양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었듯이 음악이 예배의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와 수 천 명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감동적인 영적 체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식에 매여 있는 찬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기독교문화는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한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시대에는 대규모의 찬양대나 오케스트라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성령운동과 더불어 소그룹 또는 개개인의 신앙의 표현으로 무반주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세를 거쳐 오히려 무반주 다선음악의 형식이 아주 발달하여 아카펠라 합창음악이 꽃을 피웠던 시기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접어들

면서 다시 기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오케스트라 형태를 갖춘 것은 하이든과 베토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클래식 음악이 발달하였고 전기, 후기 낭만과 시대를 지나 민족음악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중세시대 문예부흥을 통해 음악 뿐 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중심이 인본주의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세속음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속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색채와 내용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예부흥 이후로 모든 장르의 문화가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아주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문예부흥 이전에는 교회문화가 세속문화를 이끌어 갔었으나 그 이후로 세속문화가 발달하면서 교회 문화가 오히려 세속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문화가 세속문화에 비해 훨씬 뒤 떨어

진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 늘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CCM도 세속문화의 장르를 모방하여 교화문화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테크니거나 그에 수반하는 장비 등 여러 면에서 세속음악의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흉내 내는 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음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몇몇 교회가 시도하는 뮤지컬도 그렇습니다. 뮤지컬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온 브로드웨이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새만 복사해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뮤지컬 또한 학회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모만 크게 하고 돈만 많이 들어 세팅과 조명 소도구 동물까지 동원하면 대단한 작품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문화를 저급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현금을 끌어들이고 교회당만 크게 지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79. 창조론의 기초(29) 다윈에 대한 오해를

의학공부를 그만 두고 신학을 시작한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자연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여러 종의 딱정벌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남아메리카를 탐험하는 배 비글(Beagle)호에 초대되었다. 그 4년간의 여행을 통해 다윈은 몇 가지 중요한 관찰을 했으나 그는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의 지질학적인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과 오래된 지구의 연대에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편견

이야 한다. 과학자들이 한 종류(kind) 안에서 돌연변이(mutation)들을 관찰하기는 하지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것은 결코 본 적도 없고 실험으로 성공해 본 적도 없다. (최근에 만들어진 다음 Youtube 동영상은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한다. 어떤 과학자도 종류가 변한 예를 단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화론 vs 하나님-Evolution vs God[한글자막]) 과거를 말해주는 화석들을 보아도 의심의 여지없이 빠진고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1)화석 기록에 중간 모습의 화석이 없는 점 2)생물체의 기관들이 너무 복잡한 점 3)생물들의 놀라운 본능들 4)종류의 한계 밖에 있는 생물들과 교배가 불가능한 점(예를 들면 말과 당나귀는 교배가 되지만 말과 도마뱀과의 교배는 불가능) 등이다.

다윈은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자기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반대였다. 모든 과학 분야에서 더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윈의 이론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가 진화의 증거로 제시했던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과 크기의 다양성도 한 특별한 종류 안에서의 변이(variation)이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동물로 변한 진화가 아님이 알려지게 되었다.

### 다윈의 핀치새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에 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연구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여러 형태의 핀치새들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큰 흥미를 가졌는데 그는 그 차이들을 환경적인 압력들을 받아 그렇게 진화했

린 "진화나무" 그림이 그의 노트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그 그림 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I think)"라는 말을 붙여두었다. 그 나무는 현재의 모든 종들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한 것이라 그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부터 다른 진화론자들에게 의해 생명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진화나무들이 그려졌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과 맞지 않는다. 특별히 다윈 시대에는 없었던 유전학 같은 것을 통해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 독특하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화나무의 의미는 인류도 생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그림).

### 다윈과 윌리스

윌리스(Alfred Wallace)라는 영국의 또 다른 자연사학자도 다윈과 똑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 이론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잠시 다윈을 만나 교류를 했었고 심지어 다윈에게 "원형에서 무한히 벗어나는 변이의 경향에 대하여"란 논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윈과 달리 윌리스는 자기 연구를 위해 엄청난 여행을 하면서 종이 변형(transmutation)된다는 믿음을 이미

## “종의 기원” 약점: 중간 모습 없는 화석·너무 복잡한 생물체기관 놀라운 생물체 본능들·종류밖 생물교배 불가능

으로 다윈은 자기가 관찰한 것들로부터 몇 가지의 잘못된 결론들을 냈고 그 잘못된 결론들을 토대로 진화론을 만들어냈다.

다윈은 영국의 박물학자(naturalist)로서 모든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동안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 되었다는 가설을 유행시킨 사람이다. 실험이 동반되지 않은 제한된 관찰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장한 내용이 현재의 일이 아니라 기원과 과거에 대한 것이므로 그의 위치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자연사학자(natural historian)라고 해야 할 것이다. 1859년 그는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란 책을 통하여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한 진화 이론을 발표하였다. 많은 세속주의자들은 다윈의 이론을 생명과학 분야의 일차적인 이론으로 믿고 현재의 모든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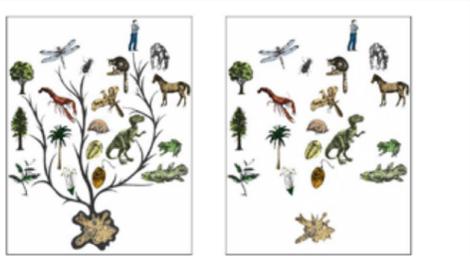
그러나 다윈의 이론은 과학이론이 갖추어야 할 속성들을 갖춘 이론이 아니다. 과학이론이 되려면 계속해서 관찰이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

리(missing link)로 인정해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중간화석이라고 보고된 모든 화석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창조론자는 물론 다른 진화론자들에게 의해 과학적으로 부인되었다.

“종의 기원”의 주요 약점들 이 책의 원 제목은 “자연선택 혹은 생존경쟁을 통한 우호적인 인종들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이다. 다윈 자신도 그의 이론에 네 가지의 주요한 약

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이 관찰한 사실은 그 부리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몇 세대 후에는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다(혹자는 이 변화를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더욱이 부리가 변한다 해도 그 핀치새들은 아직도 여전히 핀치새일 뿐 다른 종류(kind)의 동물로 변한 것이 아니다.

다윈의 “생명의 나무” 비글호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해(1837년) 다윈이 처음으로 그



**진화와 창조가 의미하는 것**  
인류는 동물이 변한 동물들 중 하나인가, 종류대로 창조된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가지고 있었다. 다윈은 4년간의 비글호 여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믿게 되었다. 윌리스는 다윈보다 앞섰지만 그의 명성이 다윈보다 높지 않은 결과로 진화론의 대표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진화론은 다윈의 독보적인 작품이 아닌 것이다.

현재의 생명체들이나 과거 살았던 생물체들(화석)들은 “진화나무”가 아니라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되고 그 안에서 변이에 의해 다양해진 창조 과수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창조 과수원의 모습은 유전학 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창세기 1장에는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10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인류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그림). “종류대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의 관계가 안정되도록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굿맨 박사(David Goodman)는 “만일 부모가 서로에게 항상 미소 짓는다면 아이는 당신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에 미소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실제적이고 중요한 훈련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 없이 지속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주는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가족의 단란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의 단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단란함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 잘못된 친구들과 물러다니게 됩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가족 집단을 연구한 결과 한 번의 포옹이 2,500분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란한 가족이 주는 정신적 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넷째, 아이에게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평범한 식사, 집안일의 분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등의 규칙적인 일과가 유익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또한 아이는 알고 있는 규칙 속에서 더욱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을 해야 합니다. 훈육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훈육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이의 삶에 평안과 질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안정감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아야 하는 질서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주 스킨십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교감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촉하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십시오. 스킨십을 자주 해주면서 키운 아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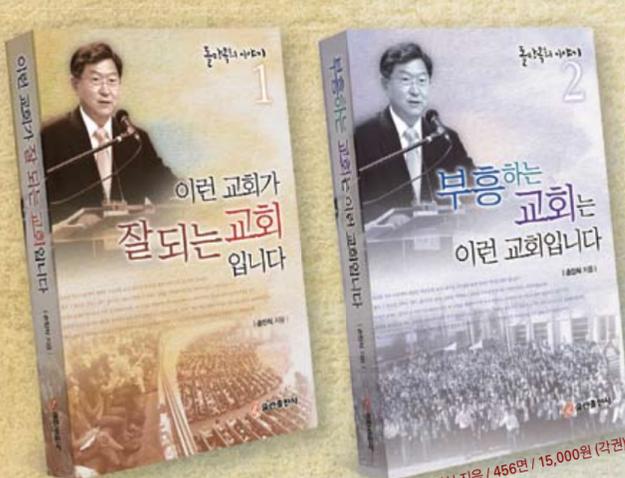
일곱째,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소속감은 안정감과 가치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가정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한 아이는 심대에 방향의 간격을 줄일 수 있으며 비형 친구와의 잘못된 소속감을 갖지 않고 가출하려는 충동도 없어집니다.

여덟째, 즐겁게 생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도와줄 때 아이들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어,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 등에는 재미없어 할 것입니다.

아홉째,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자주 해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어,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신감이야말로 아이가 성장해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과 사회성이 됩니다.

열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싫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더 안정감이 있고 심지가 견고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 받아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Korean Church Coalition) 대표간사
- 해외 3천인 목사단(UTD) 공동대표
- 이민목회연구원장
-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미래목회 세미나 강사
- 저서  
《얼바인에서 들려오는 동방복음》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화비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군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돌림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점을 두고 있다. 손승우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하람, 하준 딸 수진과 사위 최훈, 손자 가람이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떠 돌아온 탕자들이 돌탕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는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돌탕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



목회서신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모로 가다’의 의미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아무렇게나 하여도 별로 중요치 않다는 뜻이다. 기독교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어느 날 어떤 항구에 배 한척이 정박해 있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가운데로 떠내려가지 않고 항구에 걸고히 붙어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불구하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은 무엇일까? 굵은 밧줄에 의하여 배가 항구에 꽂혀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비바람에 맞서서 떠내려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배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가 밧줄에 의해 견고히 묶여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믿음이 없는 기독교 진리의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어보라. 믿음이 중요하다 하여 당신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금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능력이다. 능력도 믿음처럼 사랑 자신을 주목하게 된다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

람을 주목하게 하는 믿음과 능력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에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머니즘적인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머니즘적인 믿음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목표도 인간 자신을 위한 것에 둔다. 처음과 과정과 목표가 인간 자신 이복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 둔다. 따라서 형통하지 않은 삶을 보면 복 받지 못한 것이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처참하게 순교 당하여 죽었다. 어떤 이는 참수를 당하고, 어떤

이는 화형을 당하여 죽었다. 바울을 생각해 보라.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도덕으로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그의 앞길에 막히는 장벽이 전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많은 장애물이 등장했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감옥 안에서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 기독교 진리는 당신의 믿음을 최우선의 위치에 두지 않는다. 기독교 진리가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소망이다.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요청한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과 사머니즘적인 믿음의 차이점이다. 로마서 10장17절 말씀을 잘 주의하여 살펴 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에 고리를 걸라. 그리고 그 소망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붙잡으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계획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고 그 계획을 완성 하신이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을 우둔한 죄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드리게 하신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희미하여져서 무너져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믿음이 발생되어 나오는 지점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소망을 확신 또 확신 하므로 마음에 확증 받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얻으라. 기다림에 지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이다. 만약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지지고 지치고 지침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삶의 진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고생하고 내일도 그 고생을 감수하며 사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삶의 진보가 올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다. 이런 기다림은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가지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산 소망이다. 쉼없는 삶의 진보가 어디 온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모세대가 자랑스럽게 들려주어야 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는 간증보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저런 곤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더욱 섬기며 살았다는 간증일 것이다. 가장 고통스런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보배이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다.

순복음 북미총회 이만호 신임 총회장 선출 제 39회 정기총회...이영훈 목사 ‘하와이축복성회’ 인도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열린 제 39회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됐다. 하와이 호놀룰루 킨 카피오라니 호텔에서 개최된 북미총회는 4일 조찬기도회에서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이만호 목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대 목사로 취임해 6년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며, “북미총회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총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개회예배는 순서에 따라 총회장 인사말,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 통과, 총회장보고, 부총회장보고, 총무보고, 2013년도 제38차 정기

총회 및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회계보고,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 보고, 안건처리, 헌법 개정 후 임원선출 시간을 가졌다. 임원선출은 무기명투표로 진우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광수 목사(아틀란타선교회), 주권대 목사(캐나다순복음은혜교회)가, 임명직으로 김용현 목사(콜롬비아순복음교회), 김수의 목사(뉴저지지역선교회)가 임명 됐으며 각 지방회장 인준이 있던 후 폐회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이후에는 이태근 목사(분당복음교회)와 정재우 목사(대조동순복음교회)의 세미나에 이어 오후 4시 목사임직식이 있었다(기사 10면 참조).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원 전문상담인 7명 상담제공, 사전예약 필요

한인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한 한인기독교상담소가 개원했다. 지난 8월 한인계 신학교로서는 최초로 A.T.S의 정회원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 산하에 있는 기독교 상담학과에서는 임상심리학 교수인 김화자 교수의 지도를 받은 상담학 석사과정을 마친 7명의 전문상담인들로 구성됐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아동 정서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 부부갈등, 자녀양육,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게 된다.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

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김화자 교수는 본 상담소는 임상심리 학자의 지도를 받은 전문상담인이 일대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상승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원예배는 오는 18일(화) 오후 6시이며 예배후 조나단군 교수를 초청해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건강과 월드미션대학교”이라는 주제로 개회학술대회를 열게 된다. 사전 등록하면 간단한 저녁이 제공된다. ▲문의: (213) 388-1000 / 738-6930, 웹사이트: www.kaccla.net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저지교협 부활절연합예배 준비모임이 지난 5일 만나교회에서 열렸다.

10개 지역...예배장소교회에 새벽친교 후원 뉴저지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1차 준비모임

뉴저지한인교협(회장 김동욱 목사)은 지난 5일 오전 11시 뉴저지 만나교회(담임 김동욱 목사)에서 ‘2014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제 1차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10지역에서 예배 장소와 소집, 설교담당 목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 순서와 진행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눴다. 특이한 사항은 올해부터는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의 새벽친교를 위해 교회에서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2014년 ‘뉴저지 교회주소’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마치고, 각 지역 별로 배부될

예정이다. 제 2차 준비모임은 4월 2일(수) 오전 11시 뉴저지 만나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3월 31일 주님의은혜교회(710 Undercliff Ave, Edgewater)에서 교육분과(위원장 최준호 목사) 주관으로 임장기 교수(ATS 교수)를 강사로 ‘설교 클리닉’을 갖는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수강료는 무료.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수강신청 마감일은 3월 25일까지. 자세한 문의로는 총무 박근재 목사(201-335-7357)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14년 뮤지컬 Eternal Life ‘Redemption’ 4월 11-14일 은혜한인교회에서 3D형식

창조문화선교단(국장 이덕용 집사)에서 마련한 부활절 특별공연 2014년 뮤지컬 Eternal Life ‘Redemption’이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세 번째로 3년여에 걸쳐 공연되는 Eternal Life ‘Redemption’은 조대형 백그라운드 스크린을 무대 배경으로 실시하는 3D형식(배우와 백그라운드가 함께 섞이고 움직이는)의 한인사회 첫 번째 공연이 될 것이며 배우들의 수준급 연기가 펼쳐지게 된다. 뮤지컬 Eternal Life ‘2012년 시작 때에 연인원 6500명(3일간)’이라는 수많은 관객들이 관람을 했으며, 금년에는 ‘Redemption’ 즉 ‘구속’이라는 주제로 대본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다. 문화사역국 연극부서인 창조문화선교단은 한인사회 10여개의 교회에서 재능 있는 배우들이 함께 모여 초교파 뮤지컬 선교단이며, 현재까지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뮤지컬 극의 길이는 약 2시간55분이며, 무대 위에 건축공학으로 만들어진 2층 형 무대구조, 20개의 특수조명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가 함께 극의 구성을 이루는 건축공학과 전자 미디어가 만난 뮤지컬이다. 특히, 의상과 분장을 돋보이게 하는 블루 특수조명시스템, 브로드웨이 수준의 격상된 의상과 분장 등 뮤지컬의 외형적인 요소 또한 최고의 수준을 선보이게 된다. 창조문화선교단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고문으로, 사

역고문에 서양풍 장르, 국장에 이덕용 집사, 연출 및 감독에 김현철 간사, 행정팀장에 송민영 집사, 안무에 이수희 집사, 음악감독에 서주원 집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복음성가 가수 박선영, 성악가 권상욱, CCM 신인가수 한준수 형제, 성악가 송민영 등 성악가와 CCM 가수가 함께 구성돼 팝과 성악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보컬진들을 구성하고 있다. ‘Eternal Life’는 김현철 감독이 극본과 가사를 썼으며, 작곡에는 정봉화씨가 30곡 전곡을 작곡, 현대의 팝송 스타일과 클래식 오페라와 성가곡 스타일의 곡들이 섞여 있어 다양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극본이 완성됐다. 같은 주로 4복음서를 토대로 창작됐다. 한편 창조문화선교단은 특별히 Eternal Life 작품에 함께 참여할 주연급 남자1명, 주연급 여자 1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성악전공자 또는 CCM 가수에 꿈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교대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까지 누구나 관심과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들의 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김현철 간사 (213)215-4662, Email: ark1kim@gmail.com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7면에서 계속〉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자유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학을 종교 현상학 정도로 이해했다. 세상나라 (Civitas Mundi)는 전부 혁명과 전쟁으로 일룩지고 계몽주의 사상, 낙관주의 사상은 더 이상 이런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더구나 1789년 불란서 혁명, 나폴레옹의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그 후 불란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에서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1861-1865년에 미국의 시민전쟁 1870년에는 보불전쟁 등으로 세계는 무질서와 혁명이 지배했다. 사상적으로는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 마르크스(K. Marx)의 공산주의, 다윈의 진화론, 1869년 일차 바티칸 공의회로 가톨릭이 부흥되고, 실존주의자들이 일어났다. 이런 내외의적 환경은 낙관주의적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고등 비평주의 학파들이 일어나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난도질을 한 것이다. 위기의 시대였다. 이런 환경을 역사가의 예리한 관찰로 감지한 사람이 흐룬 반 프리스터였다. 그는 이런 19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의 사상, 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흐룬은 그가 화란의 수상을 지내면서 내건 모토는 “역사와 인생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이므로 이처럼 철저히 망가지고 파괴된 교회와 세상을 다시 살려 내는 것은 칼빈이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 무신론적이고 배교적인 사상인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다시 칼빈주의 사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혁명당을 조직했다. 흐룬이 조직한 반혁명당은 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흐룬의 사상과 정치적 기반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넘어가자 역사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카이퍼는 흐룬 반 프리스터의 칼빈주의 사상과 그의 정치사상을 고스란히 받아서 발전시키고 개혁해 나갔다. 카이퍼는 당시 계몽주의철학과 불란서혁명 사상을 추종했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과 그들의 자유방임적 경제체제 그리고 산업화 정책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소의 계층 즉 플라이너 루이덴(Kleine Luiden : 작은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반혁명당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청하는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 흐룬과 카이퍼는 비록 연령의 차이는 한 세대의 간격이었으나 그들은 칼빈주의 운동과 정치적 동반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편지를 교환하면서 주의나라 건설과 복음전도를 위해서 협력했다. 그래서 카이퍼의 멘토는 칼빈인 동시에 흐룬 반 프리스터였다. (다음호에 계속)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의 한장면

# 동부교계 게시판



## 송일현 목사 뉴욕 말씀파노라마

송일현 목사(서울 보라성교회 담임) 뉴욕 말씀파노라마가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일정은 △19일(수) 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오후 8시30분 △20일(목)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오후 7시 △23일(주) 뉴욕비전교회(담임 김연규 목사) 오전11시 △23일(주) 뉴욕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 오후 2시 △26일(수) 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 오후 8시.

▲문의: (718)690-6068

## 미주 목성연 레위기 공개강좌

미주 목회자성경연구원(목성연, 대표 문화원 목사)가 주최하는 레위기 공개강좌가 3월 31일(월)부터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강좌수강과 접수는 무료이며 교재비 20달러는 별도. 강사는 한국 목성연 대표 박승호 목사(분당 생명성교회).

▲문의: (646)623-4551

## 정여균 목사 뉴욕 일일연속집회

정여균 목사 뉴욕 일일연속집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3월 23일(주) 오전 11시 리바이벌교회(장규준 목사) △오후 1시 큰샘교회(이은수 목사) △26일(수) 오후 8시 뉴욕할렐루야교회(한기술 목사). 정여균 목사는 원당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총서업본부장도 맡고 있다.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 주관.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진아 사모 목사임직 받아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진아 사모가 목사임직을 받았다. 이진아 목사는 지난 3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 제 39회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정기총회에서 이태준 목사님과 함께 목사로서 임직됐다.



임직식은 박광수 목사(부총회장) 사회로 대표기도 주권대 목사, 성경봉독 윤호용 목사, 설교 이장균 목사, 임직선서 및 임직자 안수 강태욱 목사, 축사 권경환 목사, 권편 신임총회장 이만호 목사, 헌

금기도 이태준 목사, 축도 김충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은 본 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만호 목사와 이진아 목사 부부.

# 할렐루야대회 강사 고훈 목사 확정

## 뉴욕교협 제2차 임실행위, 감사보고 등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지난 10일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제 2차 임실행위를 열고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와 원주민 선교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태성 목사 인도로 기도 박병준 목사, 특송 뉴욕남성목사합창단, 말씀 조병광 목사, 통성기도(사순절을 맞아 뉴욕교계와 교협, 각 교회를 위해),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최창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병광 목사는 “주님이 쓰시는 조각목”(출37:1-5)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작은 나무조각에 불과한 조각목을 사용해서서 성막을 만드셨다. 우리도 조각목처럼 부족하지만 사역자로 불려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조각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싸서 기둥과 법개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다. 우리도 택함 받아 각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는



뉴욕교협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데 우리에게 맡겨진 지 교회와 교협 등을 잘 섬기기를 바란다. 특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으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이문구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원점명, 업무보고, 감사보고가 이어졌

다.

보고는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만찬 △필리핀 이재민 선교비 전달 (16명에게 2만9천여 달러) △할렐루야 북미총회대회: 강사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청소년센터: 새 사무총장 공재규 전도사 선임 △총회 시 건의: 원주민선교분과의 교

연립문성약교회)가 선출됐다. 그 외 새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기: 이상만 목사(생수의강교회) △부서기: 오상권 목사(한샘교회) △회록서기: 박희열 목사(블레싱교회) △부회록서기: 김영일 목사(행복한교회) △회계: 이신권 목사(뉴욕참교회) △부회계: 김종태 장로(주사랑장로교회)

조문위 목사(은누리장로교회)의 인도로 열린 1부 예배에서는 박희열 목사가 기도를, 김영일 목사가 시편 23:1-6을 봉독했다. 설교를 맡은 조문위 목사는 ‘선한 목자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영리에 시달리게 된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 해결책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목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찬예식이 있은 후 김남수 목사(아가페장로교회)의 축도와 이규섭 목사(윈즈한인교회)의 광고로 1부 순서를 마감했다.

뉴욕남노회(노회장 김재열 목사) 제6회 정기노회는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재열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권영국 목사(회록서기)의 대표기도, 전현수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재열 목사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요3:22-3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민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했으며 이어 이재택 목사(서기)의 봉헌기도와 전현수 목사의 광고에 이어 조성희 목사(부회장)의 축도

협상하 선교센터 개설은 종결, 감사 요구사항 보완 △동해빙기 추진위원회: 한인회 실무자의 설명(nyaction.kace.org), 16일과 23일 각 회원교회에 사인서 특별요청 △건물 이전추진위원회: 매각상황 설명(권태진 변호사) 등이다.

할렐루야북미총회대회 강사는 김삼환 목사에서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로 변경됐으며 날짜는 6월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동일하다. 장소는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로 내정됐다.

또 참석 실행위원들은 교협건물 매각에 따른 매각 허가 사인을 했다.

안건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4월 20일 오전 6시) 준비기도회(위원장 박병준 목사)는 3회에 걸쳐 한다. 일정은 제1차 준비기도회가 3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 신일교회(담임 박병준 목사), 2차는 3월 31일, 3차는 4월 14일에 열린다.

△북미주원주민선교회가 ‘원주민 선교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북미주 원주민선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교협정관 제3장 제9조 제17항에 명시 요청은 철회됐다.

(유원정 기자)

# 뉴욕일원 노회 4일 일제히 정기노회

KAPC...뉴욕노회만 11일, 뉴저지 시찰 분립



kapc뉴욕 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 소속 뉴욕일원의 노회들이 지난 4일 일제히 정기노회를 가졌다. 뉴욕노회는 11일 열렸다.

뉴욕노회(노회장 허상희 목사) 제 74회 정기노회가 11일 예사랑교회(담임 손한권 목사)에서 열렸다. 새 임원은 공헌을 통해 △노회장 손한권 목사 △부회장 이영상 목사 △서기 문종은 목사 △부서기 김해근 목사 △회록서기 홍춘식 목사 △부회록서기 임영건 목사, △회계 정진욱 장로 △부회계 김충현 장로가 선임됐다.

개회예배 설교는 손한권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요13:1-1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뜻을 본받는 목회자의 희생을 강조하며 “목회자의 희생은 귀하다.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희생하라”며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4개 시찰회로 구성돼 있는 뉴욕노회 전체 31개 교회 중 7개 교회가 속한 뉴저지 시찰분립을 허락했다.

오후 5시에는 김재형 전도사와 오인수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이 열린다. 두 전도사는 모두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윈즈장로교회에서 김 전도사는 차세대 사역을, 오 전도사는 찬양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동노회(노회장 조문희 목사) 제 74회 정기노회는 뉴욕주사랑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신입 노회장에 이길호 목사, 부노회장에 허민수 목사(뉴저지

로 예배를 마쳤다.

회무처리는 임원개선 및 교제, 절차보고, 서기 사무보고, 각부보고, 시찰회 보고,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은 전원 유임기로 결정돼 4, 5회기와 같다.

△노회장 김재열 목사 △부회장 조성희 목사 △서기 이재택 목사 △부서기 전현수 목사 △회록서기 권영국 목사 △부회록서기 이선용 목사 △회계 이희원 장로 △부회계 이형기 장로.

뉴욕서노회는 총회의 지침에 따라 뉴욕만나교회에서 제74회 정기노회를 열고 김영인 목사를 노회장으로 공천했다. 총회의 지침에 반대하는 이만수 목사측은 같은 날 뉴저지 여호수아장로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회관 목사를 노회장으로 공천했다.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 서노회 새 임원을 선출했다.

△노회장 김영인 목사 △부회장 고훈현 서기 유한수 목사 △부서기 이종태 목사 △회록서기 양조경 목사 △부회록서기 강항원 목, △회계 김은갑 장로 △부회계 김용인 장로.

여호수아장로교회에서 열린 서노회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임회관 △부회장 김상근 목사, △서기 박정식 목사, △회록서기 권극중 목사, △회계 송운섭 장로.

양 서노회는 뉴욕장로교회 교단 탈퇴와 관련 상반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총회의 지침에도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KCBN사장 문석진 목사 사임

미주 기독교 방송 KCBN, 이 사장 윤 세 웅 목사) 사장 문석진 목사(



사진)가 지난 4일, 일신상의 사유로 KCBN 사장직을 사임했다. 씨존 대표 문 목사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미주기독교방송 사장을 겸임해왔다.

문 목사는 “약 3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KCBN 사장으로서 방송운영을 맡겨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산위기에까지 갔던 KCBN의 정상화를 위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가 보여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목사는 인터넷신문 기독교뉴스 등 크리스천 종합 미디어 그룹 씨존의 미디어 사역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씨존)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예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마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_____ Fax( ) _____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65차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에 이태환 목사 제65차 총회, 부회장 임순삼 목사 최낙일 목사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이하 원로목사회, 회장 유승연 목사)가 지난 3일 오전 10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제65차 총회를 개최했다.

회장 유승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대표 기도는 제2 부회장 임순삼 목사, 성경 봉독은 총무 강영창 목사, 설교는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제1 부회장 이태환 목사가 전했다.

이태환 목사는 "우리 주변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면 건강에도 좋고 인상도 좋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전도가 되어 좋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니 좋다. 항상 기뻐함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신도들을 향한 그분의 뜻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서기 조영제 목사의 회원 점명과 홍효근 목사, 김희화 목사의 감사 보고, 최낙일 목사의 회계 보고, 강영창 목사의 총

무 보고에 이어 회원부 임성록 목사, 선교부 안덕원 목사, 친교부 홍순도 목사의 각부 보고가 있었다.

또 임원 공천을 통해서 현제 1부 회장 이태환 목사가 제65차 신입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신입회장 인준, 신구 회장단과 임원 교체, 신입회장의 인사와 공로패 증정, 직전 회장의 퇴임인사 등이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 후 신입회장인 이태환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제65차 총회를 마쳤다.

총회 후에는 신회성 목사가 '2014 원로목사회 주소록'과 지난 2월 13일 토렌스의 주님세운교회에서 가진 정기모임에 참석, 간증해주신 김영하원외원 후보와 찍은 단체 사진이 전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다음은 원로목사회 신입 임원 명단이다.

△회장: 이태환 목사 △부회장: 임순삼 목사, 최낙일 목사 △총무: 강영창 목사 △서기: 배수호 목사 △회계: 최훈일 목사 △부회계: 이국봉 목사 △회원부장: 임성록 목사 △선교부장: 노재룡 목사 △친교부장: 최대준 목사 △감사: 라무열 목사, 이광덕 목사.

(기사제공: 남가주원로목사회)

## 남가주사랑의교회 '글로벌 리더십 서밋'

빌하이벨스 목사, 라이선 전 장관, 틴스슈즈 회장 등 영상 강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가 7일과 8일 양일간 '글로벌 리더십 서밋'(Global Leadership Summit)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시오'(Lead where you are)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올해 목회 비전인 '1111 블레스드 스트리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영성훈련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첫째 날은 본 교회 소그룹 모임 다락방이 모이는 연합캠퍼스에서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노창수 목사의 인사말로 이어졌으며 빌하이벨스 목사(윌로크리교회)가 '리더십-용기가 늘 필요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했다. 이어 스티브 퍼틱(엘리베이션교회)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했다.

둘째 날은 크레 크로셀(라이프치 치맛티비)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새로운 기업 형태의 모델을 보여주는 블레이크 마이커스키 회장(틴스슈즈)이 '틴스슈즈 이야기', 인신매매와 여성의 인권 등을 위한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리니타 티모시(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피해자 보호담당 디렉터)가 '행동하는 용기', 콘돌리자 라이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고의 영예', 그리고 잔 오브트버그(멘로파크장로교회)가 '지상 최고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번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서는 모든 강의가 영상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글로벌리더십서밋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영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OCU 3월모임 예배에서 문대룡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사도요한복음의 선교적 교회론' 특강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3월 정기모임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OCU회장 최훈일 목사)는 지난 8일 오후 12시 미주복음방송 4층에서 3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임만하 전 대표의 인도로 장석운 직전회장의 목사가 35기 출신인 문대룡 목사가 '어서들어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원태여 전 대

표의 한국 미국 군대 복음화와 시국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어 장석운 장로의 피아노 특주와 김용구 목사의 트럼펫 연주가 있었으며, 이기홍 지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어 2부 특강으로 김희창 목사(군사령관교회 회장, 말씀새로운교회 담임)가 '사도요한복음의 선교적 교회론'(Ecclesiology for Mission Based on the Gospel of St. John)을 강의했다. 김 목사는 강의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병 전우회원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교회)

## 서부교계 게시판

KAPC 제22회 총회장 최현우 목사 별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제 22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를 설립한 최현우 목사(사신)가 지난 3월 9일 오후 7시 지방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천국향수에 배는 11일 오후 7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에 위치한 스카이라드 채플에서 열렸으며 하관예배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OC 어린이 무료 발달 검사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양한나)는 오렌지카운티 전역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포트네트워크와 협력해 아이들을 위한 무료발달검사를 28일(금) 오전 9시 뉴라이프미션센터(1430 E Orangethorpe Ave, Fullerton)에서 개최한다. 검사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받는다. 검사받은 아동은 오전 8시30분까지 도착해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문의: (562)926-2040

LA비전교회 비전 컨퍼런스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는 설립 4주년을 맞아 "신앙평가를 세우는 비전 컨퍼런스"를 21일(금)부터 23일(주)까지 개최한다.

▲문의: (213)386-919

월드미션대학교 25주년 학술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개교 2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18일(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미주 한인 사회의 정신 건강과 월드 미션 대학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조나단 박사가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 건강', 김현경 교수가 '이민사회의 정신 건강과 교회의 역할', 김화자 교수가 '이민사회의 정신건강과 학교의 역할' 등의 제목으로 강의한다.

▲문의: (213)388-1000

강찬 찬양간담회

가디나한가톨릭교회(담임 백창남 목사)는 찬양사역자 강찬 전도사의 찬양간담회를 15일(토) 저녁 7시에 개최한다.

▲문의: (310)951-5004

KAFM 포스터가정 프로그램 설명회

한인가정상담소(KAFM 소장 카니정조)의 Korean Foster Family Initiative 프로그램 두 번째 설명회가 29일(토) 오전 9시 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44)532-6459, esong@kfamla.org

## 장애 영아 민교, 새 가족 기다려

현재 LA아동보호국에서 보호 중

LA아동보호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이 돌보고 있는 민교 어린이가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 7월생인 여자아이 민교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두뇌발달의 어려움이 있는 소두증 및 간질과 시력, 청각을 잃어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눈물이 생기지 않아서 하루에 4번은 눈을 마사지해줘야 한다.

민교 어린이는 현재 LA아동보호국에 있으며, 민교를 돌보기 위해 지역 센터에서 Occupational Therapy와 물리치료, 시력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LA지역뿐 아니라



LA 아동보호국에서 돌보고 있는 민교 어린이

미국 전역에서 입양할 수 있다. 입양 문의는 한인가정상담소, 에스테 송, esong@kfamla.org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그레이크뮤니티교회 웨퍼드 컨퍼런스 성황

흔들리는 현대 교회의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 '웨퍼드 컨퍼런스'가 5일부터 8일까지 샌블리에 위치한 그레이크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에서 전 세계에서 온 35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5일 오전 10시 존 맥아더 목사의 전체강의로 시작 폐회되는 8일까지 4개의 세미나와 9개의 전체강의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색채강의 형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알 물러(남침례신학교), 스티브 로슨(크라이스트펠로우십교회), 마크 데버(캐피톨교회), 톰 패닝톤(컨트리사이드교회), 폴 와셔(남침례교 순회설교자), 그레그 프래저(마스터칼리지) 등 유명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

를 했다.

'웨퍼드 컨퍼런스'는 그레이크뮤니티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20여명 이상의 미국 유명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며, 약 10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행사를 돕는다.

(정리: 박준호 기자)



그레이크뮤니티교회에서 열린 웨퍼드컨퍼런스에서 존맥아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특별예배: 오후 2: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626)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on the www.nachimban.org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특별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626)339-9225, (F): (562)691-0698 1213 Gabriel Garcia St., #B L.A., CA 90033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9:15 주일 7부예배: 오후 11:00 주일 8부예배: 오후 11:00 Tel: (714)712-7777, Fax: (714)71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b>동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949)854-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A Irvine, CA 90007 www.younghk.com	<b>중앙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스티브 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St., #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평일 목요일예배: 오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어)찬양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jpcia.com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6부예배: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53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주요예배: 오후 7:30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L.A., CA 9100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대학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베델교회: 오전 6: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b>새찬양교회</b>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전 5:4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vsybn@gmail.com Tel: (714)846-6200, Fax: (714)844-3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전 6: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토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제(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b> 담임목사: 조묘숙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L.A., CA 91007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문)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문) 주일 6부예배: 오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b>얼빈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8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새벽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안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6:00(월-토) 영어학교: 오전 6:0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10)745-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ojc.org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93	<b>토렌스주교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문) 주일 6부예배: 오전 10:00 주일 7부예배: 오전 8:00 Tel: (714)957-5500 / Fax: 310-370-2009 1664 W. Mariposa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어제인 하디 1903” 기감, 대규모 선교대회 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오는 6월 12일 충북 청주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와 청년대회를 잇달아 열며 불길을 당긴 성령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대규모 기도집회를 여는 것이다.

기감 선교대회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황대성 목사는 10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감리교인 6만여명

이 모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회의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감뿐 아니라 예장 통합과 기성 소속 교회의 청년 2만여명이 참석하는 청년대회를 열기로 했다. 청년대회 장소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잡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 대원대학교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캠프를 열

예정이다.

선교대회에 앞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기도하고 감리교인들의 선교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회별 기도성회도 연다. 기도성회는 다음 달 23일 서울연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열린다. 충북연회를 중심으로는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운동, 미자립 교회 돕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기감은 또 선교대회 이후 하디기념센터 및 기념교회를 세우는 등 기

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시 흥덕구의 기감 소유 부지에 건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 비용은 본부 및 연회 지원을 받고 감리교회와 평신도 단체 등에서 모금해 마련하기로 했다.

기감 선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상임준비위원장에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와 이민재 목사(부천제일교회)를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현 서울연회 감독과 안병수 충북연회 감독, 충북연회 소속 목회자들, 평신도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기감은 평양대부흥운동의 불길을 당긴 하디 선교사의 회개 110주년을 맞아 지난해 회개 및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 “대한민국의 평화·발전을...” 한파음기도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 3000여명 참석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린 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행사장은 시종 은혜의 열기로 가득했다. 3000여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연한 녹색 반코트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회장에 입장했다. 대통령의 손에는 검은색 표지의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이어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장이 "오늘 아침에 국가조찬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한국YWCA 회장 차경애 장로는 빌립보서 3장 10-14절, 연세대 총장 정갑영 장로는 출애굽기 14장 15-20절을 봉독했다.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가 "기독교가 가는 곳이면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떤 사람이든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어느 분야든 생명의 풍성한 불이 온다"고 선포하자,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30여개국에서 온 교회지도자 200여명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은 큰 힘이 됐

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었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 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별 기도를 한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는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기도했다. 대의그룹회장 채의승 장로는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국방대 학교 총장 박삼득 장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북한 전 지역에 전파되어 저들의 도발 의지를 포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박 대통령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내 마음 속에 그리어 불 때/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주님의 권능 우 주에 찬네..." 박 대통령도, 여·야 의원도, 외국인교 장에인, 탈북민들도 모두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대한민국이 한파음기도회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가득했다. 기도회는 장종현 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 교단 총회선거, 더 엄격해지고 투명 기침 '선거공영제' ... 통합 'SNS선거운동 금지'

올해 주요 교단들의 선거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불법·고비용 선거를 차단하자는 공감대가 힘을 얻으면서 교계 전반에 걸쳐 확대될 지 주목된다.

5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총회부터 총회장단 선거를 기침 선거관리위가 관리·감독하는 '선거공영제'로 치르기로 했다. 현행 기침 교단의 선거는 후보 별로 선거 운동에 나서서 이른바 '사영(私營)제' 식으로 진행돼왔다.

기침 선거관리위가 마련 중인 선거공

영제 내규 골자는 후보자 공개토론과 토론방송, 후보자 홍보, 선거운동 선관위가 주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침 선거관리위는 오는 10일 총회장 및 부총회장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내규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기침 선거관리위원 윤여연 목사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소속 교회와 총회원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총회도 최근 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

동 규정 지침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일률 금지토록 했다. 개인 저서, 설교집 등 시무교회 출판물을 총대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후보자 명함 배부는 허용하지만 이력 및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했다.

교계 언론사 광고도 대폭 제한했다. 총회는 교계 언론사 및 노회·총회 관련 기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각 행사 출판물에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일반광고와 행사 축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선거 당일의 선거 운동도 금지키로 했다. 불법선거운동 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주의→경고→후보등록취소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는 데, 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는 후보등록취소 결의로 이어진다.

황석규 선거위원장은 "문자서비스와 SNS를 제한한 것은 투표 직전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메시지가 총대들에게 발송되기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수많은 교계 언론사가 후보자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제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99회 총회를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교학사, 동성애자 옹호 고교 도덕교과서 대폭 수정·삭제 교계 "개선됐지만 성의식 왜곡 우려 여전"

동성애 등 '성(性)적 소수자'를 지나치게 옹호해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해당부분을 크게 축소하고 반대측 내용을 새로 소개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균형 있게 기술하려 노력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추가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국민일보가 교학사의 2014년 고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남궁달하 등 6명 공저)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옹호 등 해당 내용은 지난해 3쪽(91-93쪽)에서 1쪽 5줄(80-81쪽)로 축소됐다.

문제가 된 부분 중 '성적 소수자의 의학적·비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동성애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삭제됐다. 또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성적 소수자를 비도덕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성적 소수자를 옹호한 대목도 없었다.

집필자는 대신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동성애자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는 사람들도 있다' 등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함께 소개, 학생들이 양쪽의 시각을 모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하기'의 내용도 수정됐다. 지난해 교과서에 실렸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해,

성적 소수자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조사해 보자'는 등 성적 소수자 입장에서만 생각토록 유도하는 과제는 삭제됐다. 올해는 '성적 지향은 모든 질병과 무관하며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와 'AIDS 환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많고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등 찬반논리를 함께 실은 뒤 한 가지를 골라 입장을 논술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들이 일부 기술돼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새 교과서는 주위의 따돌림이나 폭행, 취직난 및 실직위험 등 성적 소수자가 겪는 고충과 차별만 부각

하고 이들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사지도서에 2003년 자살한 동성애자와 진·보수 단체의 동성애 갈등을 상세히 소개한데 이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계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것도 편향적이다.

동성애조장교과서문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평(부산대) 교수는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균형 있게 기술하려 노력한 점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서술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분명하게 동성애의 문제점들을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천지, 이단인지 모른다” 현대종교 교회학교 고교생 52% 이단인식 조사

교회에 다니는 고등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 이단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 사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현대종교(소장 탁지원)에 따르면 최근 예장 통합 및 합동, 백석, 고신, 기하성 등 11개 교단 교회학교 고등학생 629명을 대상으로 '이단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천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9%(301명)로 나타났다. 통일교

(38.5%)와 여호와의 증인(35.2%), 하나님의 교회(33.5%)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에 불과했다. 'JMS'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였지만 이 단체의 공식 명칭 '기독교복음선교회'도 이단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구원파'를 이단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도 17.8%(112명)였지만 공식 명칭인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40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이단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는 정기 예배(47.7%)가 가장 많았다. 주위의 어른(42.6%), 수련회(24.6%), 선후배·친구(21.5%), 공공부(18.0%)가 뒤를 이었으며 이단세미나는 11.4%에 머물렀다. 대부분 학생들이 체계적인 이단대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청소년들이 이단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별칭뿐 아니라 공식 명칭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이단 단체의 교리와 특징, 포교방법을 교육하는 일도 교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지덕·이만신 등 한기총전 대표회장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들이 홍재철 현 대표회장이 추진 중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과의 통합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증경회장단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 회장들의 한국교회 대통

합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증경 회장단은 이날 2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갖고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의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증경회장 및 명예회장까지 포함해 한기총과 한교연의 대통합을 권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한교연과 통합을 위한 9인위원회를 구성했다. 홍 대표회장

은 당시 "내 임기가 2년이지만 한교연과 통합이 이뤄진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한기총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책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지덕 이만신 이용규 엄신형 이광선 목사가 서명했다. 또 한기총 명예회장인 오관석 목사도 함께 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기총 이강평 조경대 명예회장, 윤덕남 부총

무, 김만규 이단대책위원장 전문위원장 등 한기총 임원들과 교계기자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이날 서명하지 않았다. 길 목사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참석도 안 했고 내용도 잘 모르는 데 어떻게 서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길 목사는 "한기총이 박윤식 목사 건도 있고 한데 한교연이 이를 전제로 합치겠느냐. 그래서 입장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38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8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총대 제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8회 총회 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4년 5월 20일 (화) - 23일 (금)** / 3박 4일
- 장 소: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YYZ)**  
901 Dixon Rd, Toronto, Ontario M9W 1J5 CANADA ☎ 1-416-674-9400
-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까지)	2차(3월 15일까지)	3차(4월 15일까지)
2인1실	\$ 380	\$ 440	\$ 465
1인1실	\$ 730	\$ 800	\$ 825
부부	\$ 730	\$ 800	\$ 825
원로/공로	1인 \$ 280	\$ 340	\$ 365
목사	부부 \$ 630	\$ 700	\$ 725

\*현직 선교사와 복미주교회원에 대해서는 2인 1실에 한해 50% 할인해 드립니다. (참가비 \$ 190).

-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하셔야 합니다.
-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천부 모임은 20일(화)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노회장들은 하루 일찍 오시기 바람)

- 등록 및 송금안내: 등록신청서와 송금은 반드시 US Money Order (은행발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나다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일반 check도 가능함).

\*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Money Order는 받지 않습니다.  
\* Payable to: KAPC  
\* 보낼 주소 : Rev. Yung Il Jang (강영일목사)  
PO Box 35073, 700 Burnhamthorpe Rd. E. Mississauga, ON L4Y 2X0 CANADA

- 교통안내: 1) 총회정소인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이 Toronto Pearson 국제공항 (YYZ) 근처에 있으므로 총대들께서는 반드시 Toronto Pearson 국제공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을 이용하시면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셔틀버스: 25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 표시: Toronto Airport Marriott Hotel). Terminal 1 (제1청사): 정류장 (post) S5에서/ Terminal 3 (제3청사): 정류장 (post) C22에서 전화문의: 공황서류 ☎ 1-416-674-9400/ 김지연 목사 ☎ 416-999-7878
- 접수: 1) 총회 첫날 (5월 20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2) 등록마감일 (4월 15일) 이후 신청서 호텔숙박은 총준위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3)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기타: 1)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2) 주차 (Parking)는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는 하루에 \$ 10입니다. 3) 총대분들과 사모님들을 위해 5월 21일 (수)에 나이아가라폭포 (The Niagara Falls) 관광을 준비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최기정 목사 (부총무) ☎ 1-647-215-7177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엄영민목사      **서기** 고백원목사  
**총준위 위원장** 이상일목사      **총준위 서기** 신동철목사

# 선교의 창 (3)

## 자립적 선교신학을 통한 세계선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아직도 한국교회는 선교에 있어 매우 열정적이다. 선교사 파송도 2013년도 말로 25,000명이 훌쩍 넘었다. 수적으로 미국 다음이다. 한국 선교사의 자질이나 헌신도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내용은 물론 사역적 열매도 크다. 비단 장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도 선교적 열심은 타 민족의 추종을 불허한다.

확실히 한국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있다. 그 대표적 증거가 바로 선교를 위한 헌신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의 눈을 어둡게 한다. 특히 일반 회사처럼 계약에 따라 사례비를 주고 일하게 하는 경우는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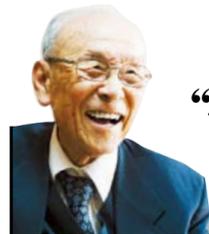
재물로 인한 주종 관계적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악이다. 물론 열악한 현지사정을 고려해 한시적 지원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건적이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영혼들이 선교의 주체인 성령의 통치 아래서 자립적 신앙으로 설 수 있고

그는 당시 조선에 와 있던 미국인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 원리를 강의하였다. 그 내용이란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이다. 이 삼자원칙은 조선인의 마음속에 있는 독립정신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스스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교회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자립적 선교신학! 이것은 사랑의 생각이 아니다. 이는 성경에 철저히 기인한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담보할 수 있는 헌신 사역자는 얼마나 될까? 아니 목숨은 둘째 치고 형편상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명자는 얼마나 될까?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생명 공동체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생존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 선교역시 짓줄인 성령께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 선교지민이 선교사나 재물에 붙어있게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현 지인을 양육할 때든 파송할 때



## 방지일 칼럼 (3) "본대로 들은 대로" 고결한 목련

연못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대조해서 나무에 그렇게 고결하게 피어나기에 목련(木蓮)의 이름이 주어진 것으로 본다. 겨울 지나 청명절이라 싶으면 개나리 꽃이 트기 시작하고 진달래도 그 뒤를 따른다. 셋노래가 필기로 피어나는 개나리 동산도 가볼만 하다. 진달래 동산도 그렇거니와 나뭇잎 몽땅 떨어져 버린 벌거벗은 듯 나무에 그렇게 고결하게 꽃만 먼저 피어나는 목련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조화를 다시금 감탄하게 된다.

새벽기도회 오는 길가에 목련이 나뉘어 봉우리로부터 북 터지면 그 고결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꽃을 아낌없이 감상한다. 그 앙상한 발 벗고 있는 나무에 웃도 입지 않았는데 그 고결한 한 꽃이! 어떻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나무속을 살살이 쪼개서 현미경으로 검사해본다 해도 어디서 그 고결한 절절한 흰 꽃이 나오는지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비함을 인간이 설명할 수 없으리라. 내가 중국 있을 때 한 공원에 목련만 심은 화원이 있었다. 그때는 수많은 목련이 그 동산에 그득했다. 그 고결한 꽃이 그 토하는 향기를 가져 마음껏 흠향할 수 있었다. 봄철이면 한 번 찾아가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순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세 번이나 음기 1장 2장에 말씀하신 바 있다. 그의 속성 가운데 첫째 순결하다 하심이다. 그 고결한 품성을 말씀하심이었다. 주님께서 나다니엘이 발람의 인도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실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으므로 하심도 우리는 기억한다. 음같이 나다니엘 같은 음이 목련의 고결함에 비길 수 있을까 한다. 음 같은 나다니엘 같은 무리가 있다면 내 옛날 중국정도 제일공원에 목련동산을 본 그대로 그 고결한 품위에서 발하는 향기를 발견을 옮겨 그 동산을 돌면서 감상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음 같은 나다니엘 같은 이들이 사는 동산이 이 땅에 있을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질곡에서 구출하신 후에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가사 중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라 그들을 주의 기쁨의 산에 심으시라" (출15:17) 그 동산이 그림다. 주께서 심으신 그 동산에서 그 고결한 목련같은 품위 또 향기를 맡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른 초봄 목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내시사 주님의 기업에 심으심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의 동산에 심기운 신민이다. 죄악의 질곡에서 보혈로 풀어 내시사 속죄 사죄 구원의 동산에 심기운 성도들이 다 빼대만 앙상한 겨울을 지난 목련 같건만 새봄 소식을 전해준다. 고결 절절한 향기 풍기는 목련같이 성도는 살게 됨이다. 자기 스스로 작심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구원의 동산에 심기위사이다. 목련만 심기운 넓은 동산에 가면 떠날 마음이 없다. 시각에 들어오는 그 고결 절절한 가만 티끌은 순수한 그 빛, 후각에 들어오는 그 향기 "복음이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아4:16) 그가 심으신 동산에는 향기가 그득하다. 혹 매운 허니바람(북풍)이 불어 닦이기도 하고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다. 어느 바람이 불건 바람 따라 향기는 날린다. 내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향기이다. 그 향기를 맡으시려 자기가 심으신 동산을 찾으시나.

심기움을 받은 자, 그 구속의 동산에 심기운 자는 이 고결한 목련 꽃을 피운다. 이 절절한 향기를 풍긴다. 그 심으신 동산, 이 심기운 나무, 우리 신앙의 시각 후각을 만족시키고 그 전 감각을 만족시킨다. 이 동산이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동산은 우리 주님의 감각을 만족시켜 만족할 뿐이다.

(1999년, 2권)

### 세계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자치, 자전, 자급이라는 3자 선교신학은 이미 검증된 이론이다

### 이제 한국선교는 3자 정신을 피 선교지민에게 생내적으로 이식해야 한다

다. 그러나 냉철히 현지인과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다. 그것은 금권(金權)적이며 제약적인 선교가 적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서는 현지인을 정화하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많은 물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Project)형 선교 그리고 선교사가 마르고 닳도록 중심이 되는 사역은 재고할 때가 되었다. 피땀 흘려 고생하고 눈물 뿌려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과 현지 역사가들의 눈에 도외시 될 때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또 있겠는가?

이유인즉, 그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선교원리를 인식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가시적 업적을 드러내고자 힘쓴 적이 많았다. 이는 영웅적인 선교를 선호하는 한국교회적 도양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히 아는 바 물질은 잘못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현지인

목 돕는 일이다. 그렇지 않을 때 현지인은 성장하지 못하며 종속적이게 된다. 나아가 선교의 재생산이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선교사가 불의의 사건 사고로 유교시 애써 일군 선교사역은 타락될 수도 있다. 밑물이 백사장의 모래성을 지우듯이 말이다.

따라서 고금을 막론하고 자립적 선교신학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 한데 성경 어디에도 개척교회를 위해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구절이 없다. 그는 오히려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 그는 자립적 선교를 지향하였다.

자립선교에 관한 대표적인 것은 삼자(3S) 이론이다. 이것은 원래 헨리 벤(Henry Venn)과 루 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이라는 사람들이 주창했다. 하지만 존 러빙스턴 네비우스(John L. Nevius)가 21년간 중국에서 선교한 경험을 토대로 소화하여 산출해 낸 실천원리라 할 수 있다.

네비우스는 1890년 내한했다.

일생이 자립적이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바울의 선교를 보면 더더욱 3자 정책적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세계선교를 바라보면 성경의 원리와 이완된 점이 많이 나타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적인 산 교훈이다.

2000년 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던 카타콤의 초대교회는 살아남았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중국 가정교회회는 오히려 부흥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제의 압제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조선교회도 올곧은 신앙을 지켰으며 오늘날의 한국교회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하늘 위로 치솟는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 예배당을 고색창연하게 치장한 중세교회회는 썩었다. 공무원 월급 받는 식의 유럽식 관제교회회는 이미 다 죽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를 통해 진행된 선교 현지는 어떠한가? 만일 선교사가 현지에서 다 철수 한다 할지라도 선교적 사명으로 주님을 위해

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독립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스스로 치리하며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점차적으로 그들이 전면에 서도록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나 한국교회는 영원히 그들의 버림목이 되어줄 수 없다. 오직 삼일일체 하나님만이 그들과 우리의 주인(Master)이시다. 자녀는 언젠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전제로 총체적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한국선교도 이제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선교원리를 삶과 사역에서 의도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그 한 방편이 있다면 한국 토양에서 이미 검증된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 자급(Self-support)이라는 3S 선교신학을 현장에 맞게 소화하며 적용하는 것이다.

이메일: jrson007@hanmail.net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 32-7767, HP. (01) 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 525-7767, HP. (01) 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 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 490-7000, Fax. (82) 436-5770 서울시 중랑구 동부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062) 264-8419~5, Fax. (062) 262-4834 500-170 광교동 서울특별시 북구 문암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 3208-8491~5, Fax. (82) 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2) 51-740-4500, 4556~8, Fax. (82) 51-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812-824)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367(로주목)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 440-9000, Fax. (82) 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 896-1000, 팩스(031) 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2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 2-2646-3181~3, (82) 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340-5 (152-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 418-0481, Fax. (82) 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잠실동)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 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영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 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8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 32-568-0191, Fax. (82) 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2(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 732-2341~3, 새벽(02) 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 253-1004, Fax. (031) 253-10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인왕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 2-842-1968, 새벽(011) 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02) 418-0481, Fax. (02) 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잠실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 2-786-6579, 새벽(82) 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 210-5500, Fax. (055) 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k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 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 942-6881, Fax. (02) 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 2-482-3536, Fax. (82) 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인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 275-9191, Fax. (043) 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b>밴쿠버빌라미야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침례: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저녁, 금요일 금요일기도회: 매일 새벽, 저녁, 금요일 금요일오전 7:30 www.pccov.org Tel. (604) 554-5780, Fax. (604) 55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55-PARL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R.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5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후 2:00(9:30주말) Tel. &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 21-574-985 E-mail: hanhn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선교 펴기

필리핀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들의 선교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을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선교 동역자님의 사랑의 후원으로 필리핀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 선교지는 거둬진 지진과 슈파태풍의 피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생활터전의 파괴와 유실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고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며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도 커져 정신적인 불안과 공포에 있는 자들도 많습니니다.

그동안 태풍 하이엔 피해 복구로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까모페스섬의 은혜교회가 복구되었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두란노신학교의 지하 상수도 파이프는 지상으로

교체하여 수리를 하였고 태풍 피해를 입은 천장 파손도 많이 복구되었습니다. 강풍으로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린 안파된 북쪽 따보곶기독교교회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 지역의 여러 교역자들이 한데 모여 주님의

적 후유증 속에 복구를 시작하지만 복구를 위한 재정적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학생, 고등학생 25 여명을 꾸준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많은 양의 성경암송과 합숙을

잘 알고 있는 현지 교인의 아들이 결혼도 하여 자녀가 있는데 잘 못된 친구의 꾀에 빠져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옥에는 마약과 살인, 총기사건 등 흉악한 범죄자들 20 여명이 지하의 방 하나에서 생활하며 밤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치약 칫솔 비누 타올 등 기초 생필품을 제공하고 한 달에 한끼라도 밥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설교와 중보기도로 크리스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그리워하며 출소

꿈나루인 어린이 사역을 위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빈민가인 아베스 지역에 하루 한끼 식사하기도 어려운 결혼가정 어린이들이 많은 사설에 하나하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오메이 칠드런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레슬리와 웨키 두 교사를 중심으로 어린이 예배와 성경공부, 매 주일 한끼 식사 제공으로 사역을 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말씀과 찬양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신학교도 학생들이 은혜 중에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과 기도 속에 처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훈련 속에 학생들이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할 때 저희들은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기도에 주심으로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성 이근순 선교사 드림.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갖자고 메시지를 전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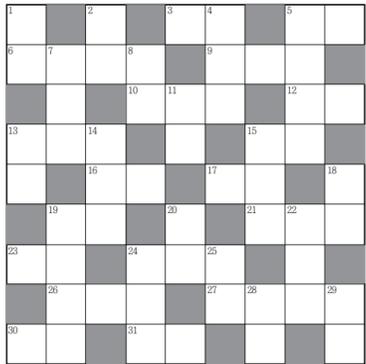
하며 분기별 집중적인 기도와 세미나 등으로 크리스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내왔습니다. 많은 문제 학생들이 말씀가운데 변화되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모범생으로 변화되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학생 중 3명의 대학생이 졸업하고 어려운 국가 교사자격 시험에 좋은 점수로 모두 합격하여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못하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형제도가 없는 필리핀에 언제 재판이 있을지 언제 출소할 수 있을지 전혀 기약이 없고 종신형일 가능성도 많습니니다. 저희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크리스천을 만들며 비록 몸은 속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좋은 품행으로 은혜를 입어 언젠가 출소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사역을 시

하여 가족을 잘 돌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도난 중 호세 세자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주 찾아가 길거리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좋은 크리스천 리더를 만들려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십자말 • Cross Word (3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3. 남녀 간에 서로 사모하는 사랑(창29:18).
5. 활동할 힘이 없음(삼32:36).
6. 내가 참 OOOO요 내 아버지는 그 능부라요(요15:1).
9.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군병들의 근무하는 곳(왕하15:25).
10. 죽은 사람(시88:5).
12. 의리에 아긋남. 옳지 않음(출18:21).
13. 살이 고운 삼베(레16:4).
15.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욥8:3).
16. 참혹하게 죽임(삼하21:5).
17. 형과 아우(민27:10).
19. 학문에 뛰어난 사람(사50:4).
21. 물을 길어놓고 쓰는 큰 가마(왕상7:38).
23.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별명은 계바(마4:18).
24. 어떤 임무를 띠고 다른 곳으로 보내진 사람(마2:13).
26.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할 때 강물이 이곳까지 쌓여서 머물렀다(수3:16).
27. 수리가 동편 수도. 유브라데강 동쪽 안에 있음(렘46:2).
30. 공기의 움직임의 현상(전1:6).
31. 심신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롬4:6).

<세로 푸는 열쇠>

- 1. 아침 하례 때 입금이 입된 예복, 붉은 색(마27:28).
2. 예수의 죽보 중 한 사람으로 다윗의 증손자(눅3:31).
4.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렘3:4).
5. 무엇에든지 다 능통함(욥42:2).
7. 야벳의 손자요 고벨의 아들, 바닷가에 거주했다(대상1:6).
8. 아무 일이 없음(삼상20:21).
11.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보통이 아닌 상태(딤후2:16).
13. 온 세상(약3:6).
14. 환포하고 사나운 사람(사25:4).
15. 전제에 드리는 예물(창35:14).
18.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계9:2).
19. 다윗의 용사, 야소브람을 말하는 듯(대상11:11).
20.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물을 맨 먼저 찾아냄(행17:6).
22. 섬김의 큰 새. 몸은 흰 빛, 백학(렘8:7).
24. 살구의 일종. 그 열매는 식용으로 할 수 있다(창43:11).
25.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어 반들반들하게 된 잔물(사30:28).
28. 그 모양 그대로(마15:14).
29. 아라비아의 성읍(창10:30).

십자말 정답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 the US and Canada.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and contact persons.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8 사모의 사역가꾸기 (2)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제 19기 CMF 사모교실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 보는 인도 땅을 향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려와 위압감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 대한 소식들이 여기 저기에서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이번에도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었기에 호기심과 함께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결과를 얻게 되니 다음 사역을 향한 열정에 다시금 준비하게 됩니다.

3년전 영국에서 만난 어느 선교사님이 10년간 닦아 놓은 인도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22시간의 비행시간동안을 즐겁게 즐기며 누리며 도착한 시간

게 부르며 도착한 인도 땅이었는데 어느 덧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명같은 다 식어져버리고 현실에 적응하기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 모두는 열심히 신발을 벗는 뉘를 통해 다시금 사명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신발을 벗은 채 다시금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받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각각의 부르심의 사역은 달라도... 비전과 은사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분모는 우리는 사모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피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의 고귀한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는 사명 또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신고 다녔던 고집의 신발, 내 맘대로 주를 위해 사역한다고 돌아다녔던 고정관념의 구두,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구두, 이리 저리 핑계되며 게으름 부렸던 게으름의 구두, 남과 쉽게 비교하고 쉽게 좌절하는 절망의 구두 등 모두 벗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난 후에 결단한 사모들의 고백을 들어보았다.

"이전 일들이 힘들고 지쳐 하지 말아야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 첫 시간인 사모의 사명가꾸기 시간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 결심

##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하신 인도 CMF 사모교실 은혜 넘쳐 선교사 사모들의 재헌신 재도전 일깨우는 눈물의 시간...

은 새벽 5시였습니다.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모든 직원들은 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 검사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게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인도에서 사역하고 온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정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살벌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무시무시하다는 등 많은 정보로 인해 겁에 질렸는데, 이상하리만큼 다른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사가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뿔뿔을 쳐서 부수며 쇠뿔을 꺾고 네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미리 인도 에이레네 방(사모들을 위한 평화의 방)을 만들어 기도도 준비하게 해주신 것은 크신 은혜였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모들이었으나 마음은 이미 다 열려 있었기에 준비모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는 컸습니다. 2박3일 동안 사모들의 갈급한 마음은 그들의 눈망울에서 이미 알 수 있었고 강의 시간마다 내리시는 소낙비 같은 은혜는 그들의 메마른 심령들을 적셔 주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4시까지 3일간 하는 동안 우리는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첫째시간에 있었던 '사모의 사명가꾸기' 시간에는 사모의 정체성과 사명의 귀중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사모가 행복한 여인인 이유를 전할 때 사모들의 잠자던 정체성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올 때는 "부름받아 나선 이름 어디든지 가오리라" 뜨겁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C사모).

"이번 사모교실의 주제인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을 통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듣고 웃고 웃고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M사모).

"희미해져가는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지쳐서 영육 간에 힘들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네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들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신발을 벗는 동안 나의 부족한 부분, 깨뜨려야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으며 다시 주님을 갈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O사모).

"답답했던 문제와 영적인 회복이 되었으며 남편을 더 이해하고 자세히 아는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P사모).

"선교지 특성상 사모보다는 남편 선교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라 남편의 영육 간 건강상태를 잘 체크해서 열심을 내야 할 때, 힘이 필요할 때를 잘 분별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U사모).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깨닫고 난 후 나의 자존감 세우기를 굳게 결단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T사모).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천국의 기쁨(눅15:1-10)찬493장

그 나라 왕이 오신 세상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본문은 이 길을 어떻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바리새인(1-2)과 달리 천국의 기쁨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9).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전통을 즐긴 이유는 경건의 핵심인 복음의 맛과 전통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과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잃어버린 양인 내가 주의 사랑의 손에 의해 찾은바 된 천국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둘째, 전도할 때 누립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에서 벗지 말고 잃은 자를 찾아나서는 전도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가짜웃음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위해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 화 이미 임한 그 나라(눅17:20-37)찬64장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나라의 증거를 본문은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 "하나님나라가 너희 가운데(within) 있느니라"(21)는 말씀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는 신자의 마음,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절대통치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성령 안에서 지금 일하십니다. 장차 그 분이 오시는 인자의 나 타날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 비밀은 외식된 사람에

게 가려진 비밀로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는 가난한 마음이 맛보아지고 누리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가난(푸토코스-절대가난)을 유지하는 일입니다(마5:3). 둘째,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할 일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현실에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너무 몰랑주의적 형태로 치단은 이 세대의 미혹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 수 교제의 즐거움(눅19:45-20:8)찬278장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전된 신자의 마음은 천국 교제의 기쁨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기도의 향연이 가득찬 교제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신대로 성전은 예전의 실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기도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에 떡냄새, 음식집에 음식냄새가 나듯이 기도집에는 기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

리는 상태입니다. 둘째, 그 교제를 상실한 곳은 자연히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외식의 죄만 키우는 바리새인의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생의 교제를 알지 못하는 곳에는 어두운 일만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나 이상한 교제로 가득찬 이 혼란의 시대에 성전 안의 참 교제를 추구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 목 종말을 사는 지혜(눅21:29-38)찬161장

주님이 오신 시대로부터 시작된 종말시대는 완성된 구원을 위하여 종말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종말에 어떤 교훈을 가르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3)"는 선언대로 천지의 멸망보다 주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의 절대성취를 주장함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자기주장입니다. 오직 그의 말만을 듣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둘째, 36절의 "인자 앞"이란 그만이 심판주시란

뜻입니다(37). 도래할 하나님나라를 주야로 가르치신 겸손하고 진실하신 그 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셋째, 종말을 사는 신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34).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여려가 그것입니다. 특히 가시밭 같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성령 술에 취해야 하며(엡5:18) 성령의 근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36). 종말을 성령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 금 십자가를 사랑하자(눅23:13-25)찬496장

십자가를 중심한 기독교는 실제로 십자가사건을 통해 확실히 증거합니다. 첫째, 최대 역ולה한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23). 군중의 큰 소리가 세력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ולה한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둘째, 불의한 십자가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때려서 놓으려하나 백성들이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동했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그에게 대신 지우신 것입니다. 셋째,

무지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지만 성난 군중에 아첨해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백성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내 소신을 굽힌 적이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갑시다.

### 토 복음의 방어(행18:12-23)찬241장

초대교회의 복음이 공격과 방어 형태로 증거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이방인의 회심을 둘러싸고 유대 거짓 교훈이 활개쳐 혼란케 했습니다(24). 진리로 거듭난 영혼은 모든 일을 진리에 뿌리를 뒹아합니다. 잠시나마 이행칭의 교훈이 마음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 문제는 성령의 뜻을 공식화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사도자신과 사역과 그들의 의논을 통해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혼란 중에서도 이신득의 교리가 계속되도록 이

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일찍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혼란 속에 진정한 치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의 증거대로 구약 계시에 뿌리를 두고 신약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이처럼 근거 깊은 구속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 미주오순절연합 총회

# 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 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안수  
①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파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가 있습니다)

###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4. 제출기간

2014년 3월 14일(금)

### 5. 기타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회 조용기 목사)  
봉사와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제 활동)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Net-Work 형성 한국 - 미국)

###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 318-9521 / 최명상 목사 (323) 317-3749

##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 교회연합 선교대회 여는 북미원주민선교회 회장 김수태 목사

# “연합선교로 하나님나라 확장”

3월 23일(주)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

“이번 교회 연합선교대회의 취지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선교지에 대한 정보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연합선교를 통해 한 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선교 사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선교/전도’ 하면 먼저 생각나는 목사님 김수태 목사(뉴욕 어린양교회 담임)가 3월 23일(주) 개최되는 교회연합 선교대회를 향한 마음을 드러냈다. 저녁 6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김수태 목사

다.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니 교협 산하 보다는 선교회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돼 함께 동역하던 교회들과 북미원주민선교회[관련 기사 본지 제1473호 10면]를 발족했다.

김수태 목사의 또 하나의 선교비전은 중미에 선교센터를 건립해 2세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교회가 2세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 현장(교회)에서 사역을 시키는 것처럼 2세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많이 보내야합니다. 선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보다 열악한 곳이 효

## 뉴욕에서 선교현장 체험... 선교사 직접 만나 중남미선교센터 설립, 2세 선교사 양성 비전

열리는 이 대회에서 그동안 김수태 목사의 뉴욕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이런 대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원주민들과 선교사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 이번에도 ‘수만 달러’가 들었다고 귀띔한 김수태 목사는 대회 강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다.

이번 교회연합 선교대회는 북미 원주민, 과테말라, 그리고 아마존에서 온 3명의 선교사가 선교지를 소개하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 넣으며 선교도전을 한다. 또, 사회를 맡은 한국의 인기 개그맨 정종철 집사의 신앙 간증도 있다. 이외에 성극과 무용 등 문화 공연도 함께 열린다.

먼저 북미 원주민 출신인 Harvey Yesno 선교사의 선교도전에 이어 과테말라 유광수 선교사가 등장한다. 유 선교사는 1999년, 3년전 먼저 사역을 시작한 아내 윤영숙 선교사와 합류해 과테말라 사역을 시작했다.

유 선교사부부가 사역을 시작한 비야누에바시는 과테말라에서 유명한 최악의 범죄 도시였다. 교육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 사립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다

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유광수 선교사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육부 산하 남부교육청 산하 지역 4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철기 선교사는 1991년부터 아내 허은석 선교사(2013년 폐암으로 소천)와 아마존 사역을 시작했다. 김 선교사는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연세대에서 수여하는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선교사는 1997년 아마존 ‘검은 강 상류신학교’를 설립하고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50여명의 현지인들을 힘겹게 교육시켜 목사안수를 했다. 2007년부터는 병원선 사역을 시작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60명으로 시작했던 북미원주민 선교가 700명 선으로 진입했습니다. 2014년 북미원주민 선교는 7월



부터 훈련을 받고 8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캐나다 옌스테이트 뉴욕부터 미네소타까지 지금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김동승 선교사(캐나다 북미원주민선교)와 함께 현지를 답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오던 원주민선교가 회원교회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지난해는 교협의 후원을 받아 진행했

과적입니다. 중미는 그런 면에서 최적의 선교지입니다. 일인당 600달러 정도면 1주일 선교지 방문이 가능하지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영어만 가르쳐도 선교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김 목사는 이미 도미니카선교센터 헌당식을 마쳤고 니카라과에도 센터설립을 추진 중이다.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도 선교의 최적지라고 설명한다.

교회연합 선교대회에 대해 김수태 목사는 ‘선교현장 간접체험’이라고 설명했다.

“교인들이 선교현장에 못가니까 대회를 통해 선교지를 볼 수 있도록 현지인들이나 현지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와 엘살바도르 등의 선교현장을 피부로 느끼도록 현지인들을 초청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역을 브라질 아마존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현지 소개를 해주시고 동영상과 성극으로 알리게 됩니다. 티켓(1장당 20달러)을 3000장 제작했는데 얼마나 후원금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현지 선교사와 지역교회를 연결하고 후원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유원정 기자)

## 제45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II 샌안토니오 세미나

KIM Mission 주최 3월 21-30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주제



중앙아시아4국 MP 세미나 사진

KIM Mission이 주최하는 제45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II 샌안토니오 세미나가 3월 21일(금)부터 30일(주)까지 샌안토니오온누리교회(ANCSA, 담임 박한덕 목사)에서 열린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이라는 주제로 바나바스 김경환 선교사(KIM Mission 대표)를 주강사로 김문신 장로(볼티모어교회, MP수료자)와 최도문 박사(초대이사장)가 강사로 선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선교사후보생, 교회선교위원, 단기선교 예정자, 청년대학생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ANCSA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등록비는 50달러로 간식비, 주교재 요약 해설집, 수료증, 명찰 등이 포함되었다.

특전은 수료 후 교회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으며, 국제MP 세미나 동문회 등을 통한 미주 및 전세계 Korean Diaspora Mission Network에 동참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창립된 KIM Mission(대표 바나바스 김경환 선교사, 이사장 임이근 장로)의 특징은 첫째, 지난 13년간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진행돼온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과 교회들로 구성된 제2의 헌신 공동체다. 또한 선교회의 주축인 이사회는 훈련되고 헌신된 평신도 전문가 및 비즈니스맨들로 구성돼 있다.

김미션의 대표 바나바스김경환 목사는 미육군 예비군목이며 현재는 Ft Sam Houston BAMC에서 근무 중이다. 국제OM선교회 들로호를 타고 3년간 사역했으며 이후 10년간 OM미주한인본부 대표를 역임했다.

동 선교회는 미션 퍼스펙티브스(MP) 세미나 보급을 통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이뤄가며 미주한인교회들과 선교사들의 현장 사역을 섬기는 목적으로 창설됐다.

매년 2-4회 진행되는 이 MP 세미나를 통해 헌신된 평신도 비즈니스맨들을 양성하며 지역교회 부흥과 선교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수료자의 99%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선교일꾼이 된다고.

영어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3만명 이상이 수료한 MP 세미나는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로도 번역됐으며, 러시아어와 포르투갈어로도 번역 중이다.

한국어 세미나 집중 보급단체로서 KIM Mission은 13년간 44차례 한국어 세미나를 통해 3,6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중 약30여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미주에서는 LA, 애들랜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시카고, 시애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칼리지 스테이션(TX), 산호세, 과테말라, 상파울루 등지의 주요 한인교회 등에서 대부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김미션은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조망해주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II 세미나의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 및 디아스포라 한인사회에 보급해나가는 비전을 품고 있다.

▲연락처: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www.onnurisa.com) (626)354-2295, (213)215-9834, www.KIMMission.org

# Missions Conference

# 교회 연합 선교대회

HARVEY YESNO 선교사  
Native American

유광수 선교사  
Guatemala

김철기 선교사  
Amazon

정종철 개그맨

일시 : 2014년 3월 23일(주일) 오후 6시

장소 : 프라미스교회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연락처 뉴욕 어린양교회 Tel 718-899-8309 / 718-899-1218

주최 북미원주민선교회 | 후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뉴욕목사회, 기독교일보, 아멘넷, 교회일보, KCTS